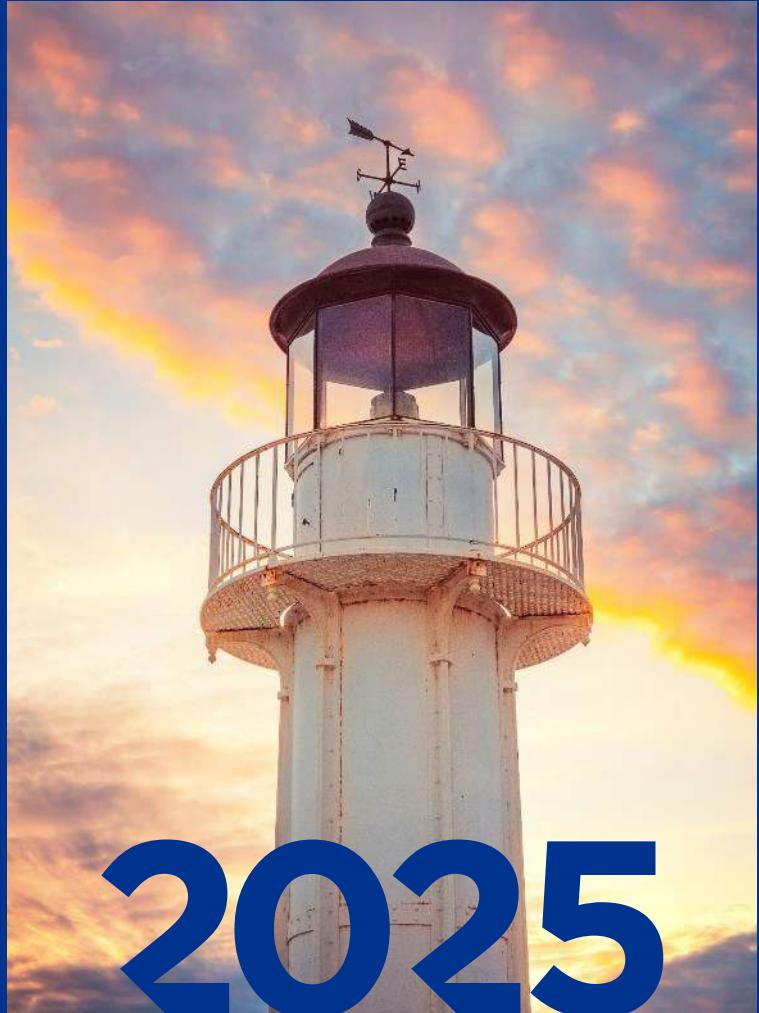


2025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 자동차 | 철강 | 조선 | 해운 |
정유·화학 | 에너지·유ти리티 | 제약·바이오 | 건설 | 항공 | 게임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유통 | 식품·외식 | 패션 | 화장품 | 은행 |
증권 | 카드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저축은행·캐피탈

December 2024

—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상무
E gyulimkim@kr.kpmg.com

최연경
책임연구원
E yeonkyungchoi@kr.kpmg.com

차윤지
책임연구원
E yoonjicha@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E yeom@kr.kpmg.com

최창환
책임연구원
E changhwanchoi@kr.kpmg.com

전혜린
선임연구원
E haerinjeon@kr.kpmg.com

이효정
상무
E hyojunglee@kr.kpmg.com

박도휘
이사
E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E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E sookkyungki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I

2025년
산업기상도·
비즈니스
트렌드
Snapshot

II

2025년
경제 전망

III

2025년
비즈니스
트렌드

IV

2025년
산업별 전망

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I

2025년 산업 기상도· 비즈니스 트렌드 Snapshot



I. 2025년 산업 기상도·비즈니스 트렌드 Snapshot

2025년 산업 전망 기상도

'25년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영향도가 높은 국내 주요 산업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나, 일부 업종 수요 개선 및 수익성 제고 기대

산업	'25년 전망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정유·화학	

산업	'25년 전망
에너지·유ти리티	
제약·바이오	
건설	
항공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유통	
식품·외식	

산업	'25년 전망
패션	
화장품	
은행	
증권	
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캐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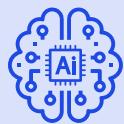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I. 2025년 산업 기상도·비즈니스 트렌드 Snapshot

2025년 키워드로 본 비즈니스 트렌드

Trend 01

AI 확산



-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분야가 늘어나며 반도체 등 AI 구현을 위한 인프라 경쟁 확대
- AI를 통한 기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 향상 효과 기대
-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출시 지속

Trend 02

에너지 전환



- 화석연료의 급격한 퇴출보다는 탄소배출의 감축에 집중
- 브릿지 에너지로서 가스와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역할 확대
- 탈탄소를 이끄는 넷제로 혁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Trend 03

K-wave



- K-콘텐츠로 시작된 인기가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산하며,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영역에서 한국 제품의 인지도 상승
-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조업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적극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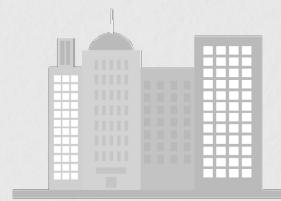
Trend 04

인구구조 변화



-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 기회 모색
- 맞춤형 의료 서비스·식단·금융 설계 등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전략 마련
- 외국인, 난임 환자 등 확대되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고객 세그먼트를 세분화하여 서비스 제공

2025 Business Trends



Trend 05

공급망 안정화



-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이전, 영업, R&D 강화
- 우방국·역내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수직계열화 및 핵심소재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JV(조인트벤처), 수입국 다변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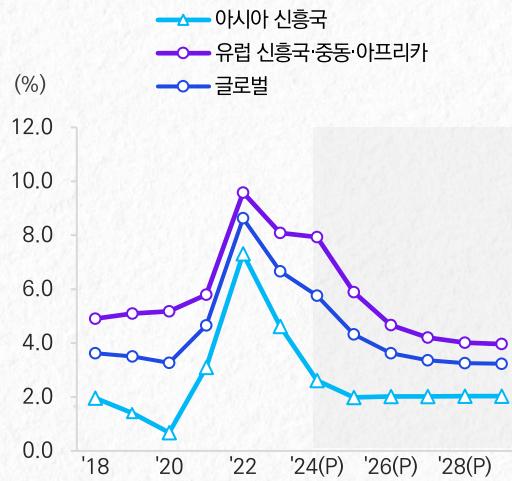
2025년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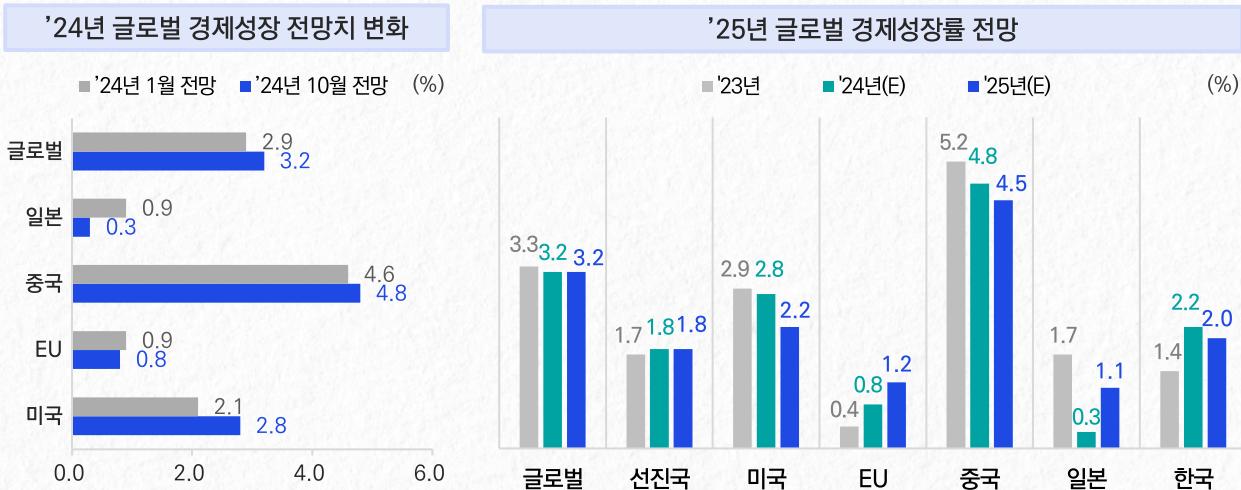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25년 글로벌 저성장·인플레 하향 안정화 국면 속 미국 예외주의

'24년 연초 전망 대비 미국과 중국 경제 견조한 성장세 시현하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25년 미국 예외주의가 예상되는 반면 주요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에 따른 차별화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및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및 하향 안정화 추세 전망

- 글로벌 평균 인플레이션은 '23년 6.7%에서 '24년 5.8%, '25년 4.3%로 하락 추세 전망
- 미국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으며, 지역별 신흥시장 간 격차 존재

Source: IMF(2024.10), 'World Economic Outlook'
Note: 각 지역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평균 기준

'25년 미국 예외주의 강화 속 주요국은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 통화정책 및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국가별 활로 모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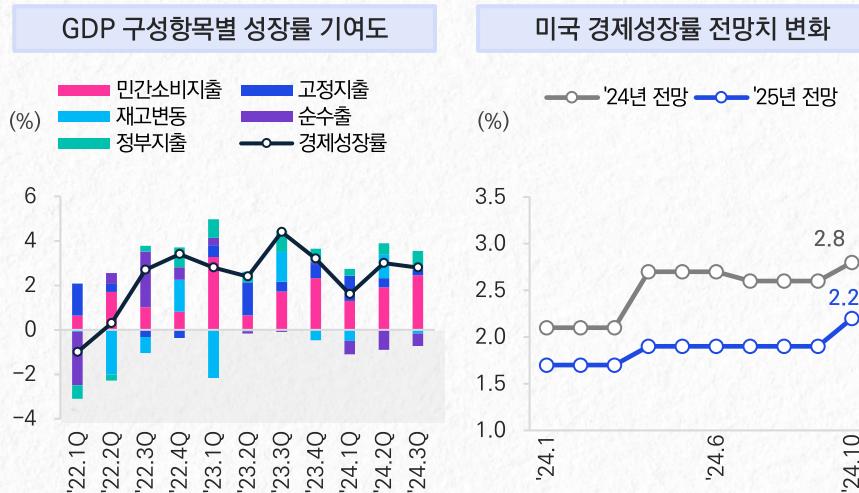
- '24년 연초 전망 대비 미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중국은 정부 목표(5%)를 하회하였으나, 연초 대비 성장률 상향 조정. EU와 일본은 0%대
-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할 전망. 중국의 경기 부진 가능성이 부각되나, '25년 EU, 일본 등은 '24년 대비 경기 개선 전망
- '24년 11월 IMF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은 대외불확실성으로 하향 조정되어 '25년 경제성장률은 2.0% 달성 전망
- 미국의 통상정책 및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국가별 경제성장을 차별화 양상 가능

Source: IMF(2024.1), 'World Economic Outlook', IMF(2024.10), 'World Economic Outlook', 기획재정부(2024.11.20), '2024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글로벌 경제》 미국 ① 견조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노동시장

'24년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안정적인 고용 시장에 기반한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이 미국 경기 개선을 주도하며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최근 고용시장은 냉각 우려 속에서도 예상치를 웃돌며 견조한 수준 유지

미국 경제성장을 전망치와 GDP 구성항목별 기여도



미국,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 … '25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상승

- 고금리 및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고용 등을 기반으로 민간소비지출 증가. 연방정부 국방비 지출 증가 등과 맞물려 미국 경제성장 주도
-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상존
-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증가로 '24년 10월 IMF는 '25년 경제성장을 1.9%에서 2.2%로 상향 조정

Source: BEA, IMF(2024.10), 'World Economic Outlook'

미국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



물가상승률과 고용 안정세 … 고용시장 냉각 우려 있었으나, '24년 11월 골디락스로 평가

- 물가상승률은 '22년 중반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22년 10월 CPI와 PCE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2.1%를 기록하며 연준 목표 수준에 근접
- 실업률은 '23년 3%대에서 '24년 11월 4.2%로 상승세이나 안정적인 수준
-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21년 이후 감소세이나 '24년 11월 전월대비 22.7만 명으로 예상치 상회

Source: BE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te: 인플레이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글로벌 경제 》 미국 ② 트럼프 제2기, 정책 간 충돌 가능성과 불확실성 공존

트럼프 제2기에서 미국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보편관세, 중국 등에 대한 전방위적 통상 제재, 저가 에너지 정책 추진 예정. 감세와 저금리 기조를 표방하나 통화정책-재정정책 간 충돌로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우려 상존

트럼프 제2기 주요 정책 공약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

보편관세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중국의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최혜국 대우 박탈

화석연료 개발 등을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

법인세 최고세율 15%까지 인하 계획

IRA, CHIPS Act 폐지 또는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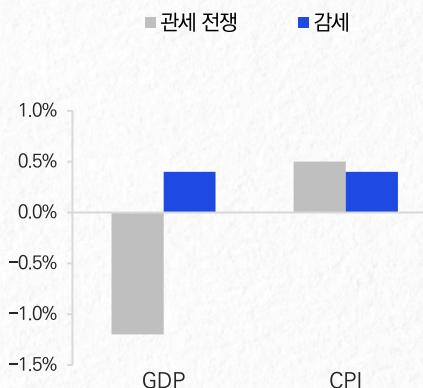
트럼프 제2기, 보호무역주의 확대, 제조업 중시, 중국 억제 기조 강화 전망

- '24년 11월 27일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는 10% 관세 부과 예고 및 '24년 12월 3일 고대역폭메모리(HBM)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통한 對중국 수출통제 대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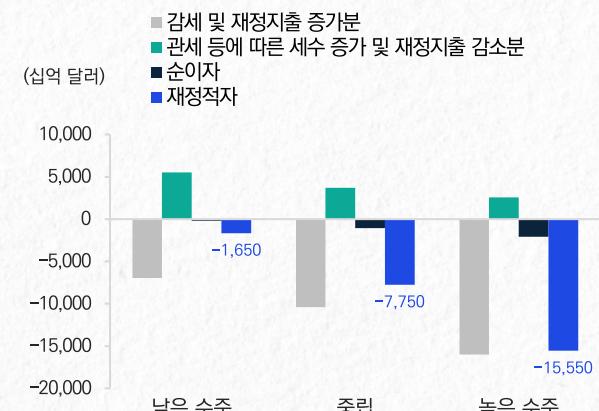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국 관세 및 감세 등에 따른 영향

감세 및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감세 등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 확대 ('26~'35년)



법인세 감세, 관세 중심 무역정책, 불법이민자 추방 등은 GDP 감소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유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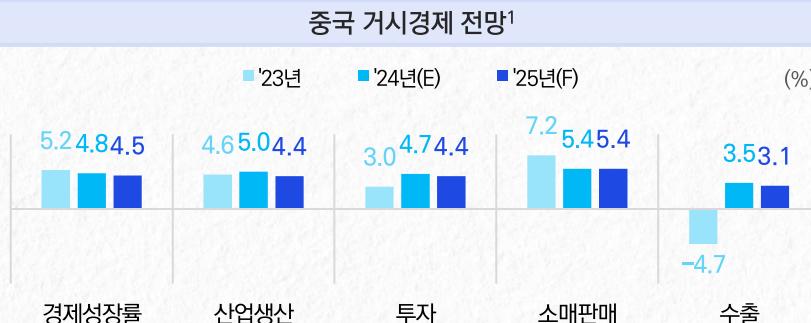
- 블룸버그는 트럼프 2기의 관세 중심 무역 정책과 감세 정책 공약으로 소비자물가지수 0.8% 상승, GDP 0.7% 감소 추정
- 감세 및 재정지출 증기분(6.9조 달러 ~ 16.0조 달러)은 재정적자 확대 유발. 적자 국채 발행 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소지
-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자의 다양한 경제 공약의 수정(예: 개인소득세 감세 범위 축소) 가능성도 높은 수준

Source: Bloomberg, CRFB(2024.10)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글로벌 경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 … 폴리코노미 리스크 고조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로 내수는 위축 중임.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5% 미만의 경제성장을 전망. 미·중 갈등에 따른 무역 관련 리스크 유의

중국 거시경제 전망 및 对미국 정책 변화



-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 부과하는 경우,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을 0.7~3.5%p 하락, 대미수출 약 30% 감소 전망

중국의 对미국 대응책

관세협정 위반국에 대한 동등 관세 부과 근거 마련	- 중국은 새로운 관세법 시행('24년 12월 1일)을 통해 국제조약·협정의 최혜국 대우 또는 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 하 보복관세 허용 근거 마련
핵심소재 미국 수출 통제('24년 12월 3일)	- 중국 상무부, '24년 12월 3일부터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 발표(미국의 对중 HBM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1일 후 발표)

Source: IMF(2024.10), 'World Economic Outlook', 국제금융센터, Capital Economics,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경제성장률은 '24년 10월 IMF 전망치, 산업생산·투자·소매판매·수출은 '24년 7월 국제금융센터 전망치

'24년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9월 24일 (인민은행)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시장·주가 진작 등 종합부양책 발표

- (통화정책 완화) 지급준비율(50bp), 역RP 금리(7일물, 20bp), 우대대출금리(20~25bp) 등 인하
- (부동산 시장 부양) 기존 모기지 금리를 신규 대출 수준까지(평균 50bp) 인하 요구, 2주택자 대출 시 납입금 최저 한도(25% → 15%) 하향, 지방 국유기업의 부동산 매입 대출 지원(가격의 60% → 100%) 확대, 건설업체 토지구매 지원 및 기존 부동산시장 구제 정책 기한 연장 등
- (자본시장 지원) 인민은행-기관 간 5천억 위안 주식 투자 스왑 프로그램, 3천억 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지원(은행 대대출 프로그램) 등

10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채권 발행 확대 등 재정부양책 발표

- '25년 정책예산 중 1,000억 위안을 '24년까지 조기집행, 주요 인프라에 1,000억 위안 투입

10월 14일 (전인대 상무위)

재정부, 2.7조 위안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 발표

-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 주택시장 부양, 저소득층 지원 계획
- 특별 국채 2.3조 위안, 지방채 신고 4,000억 위안 등 총 2.7조 위안 패키지

11월 8일 (전인대 상무위)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10조 위안 대규모 부양책 발표

-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 위안 증액, 4조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채권 분할 발행하여 부채 양성화
- '28년까지 음성부채 규모 감소(14.3조 → 2.3조 위안), 5년간 이자비용 6,000억 위안 절감 전망

11월 13일 (재정부)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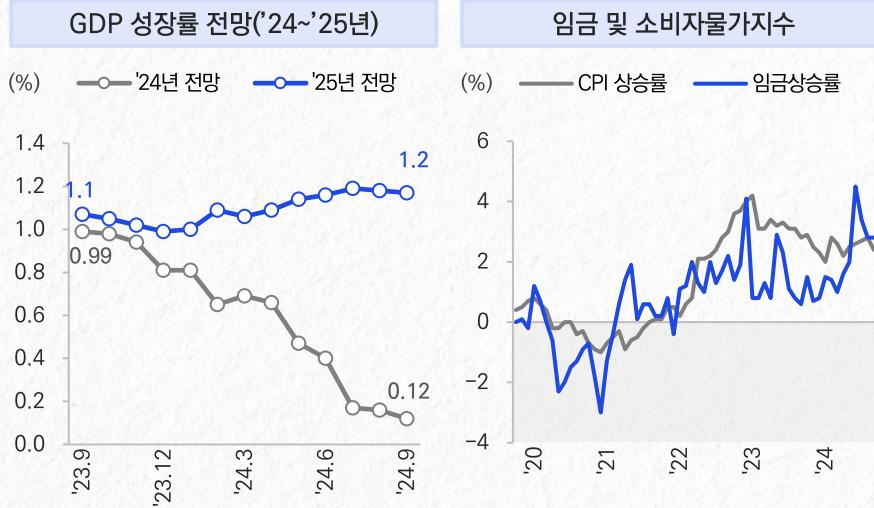
- 고급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 거래 촉진
-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3% → 1%)
- 토지 부가가치세(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기준 0.5%p 인하

Source: 국제금융센터,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경제》 일본, 내수 부진 타계 및 통화 정상화 모색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기조로 정부의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지속되면서 '25년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 개선 전망. 향후 일본은 대내외 불확실성, 엔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정할 전망

일본 경제성장을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미·일 장기금리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및 전망



소비 부진 완화 등으로 잠재성장을 웃도는 경제성장을 전망

- '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2%(연환산)로 시장 전망치(0.9%) 상회
- 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 소비 개선 전망. 반면, 총선 결과에 의한 시장 변동성 및 자연재해, 대외 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
- '24년 11월 22일 내각부는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약 21조 9천억 엔 규모의 경제 부양책을 승인, 실질 GDP 21조 엔 증가 기대

물가상승률 전망' 실현 정도, 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리 인상 조정 방침

- 최근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엔저에 의한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 감소,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및 가계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지속
- '24년 7월 금리 인상(0~0.1% → 0.25%)에 이어 12월 금리 인상 전망
- 일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2% 목표를 넘어서 후에도 엔저 지속 시 금융정책 변경을 고려 중이며, 향후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리스크 상존

Source: Bloomberg, 일본 통계청,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은행(2024.8), '경제전망 Indigo Book',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8), '2025년 세계경제 전망',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일본은행, St.Louis FED, 국제금융센터(2024.8), '엔화 환율 변동의 일본 경제 영향', 언론보도 종합, Bloomberg(2024.12.11 기준),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5년 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2.0~2.3% 전망

한국 경제》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1%대 경제성장 가능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와 건설부문 부진 등 내수 회복세 제약에 더해 12월 들어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등을 제약할 가능성 확대. 이에 '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5~2.1%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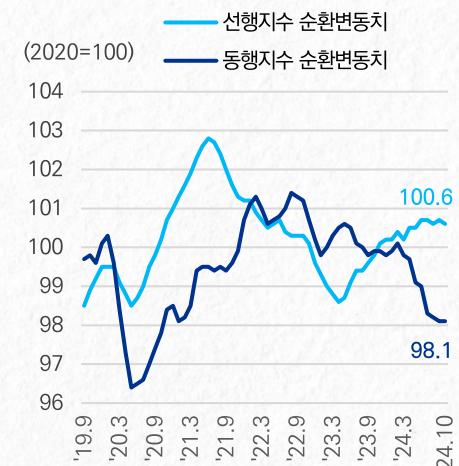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24년 11월 기준)

구분	한국은행 전망						
	'23년		'24년		'25년(E)		'26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1.4	2.8	1.6	1.4	2.3	1.9	1.8
민간소비	1.8	1.0	1.4	1.8	2.3	2.0	1.8
건설투자	1.5	0.4	-2.9	-3.2	0.5	-1.3	2.7
설비투자	1.1	-1.8	4.9	5.7	0.5	3.0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7	1.5	-0.1	2.7	5.0	3.9	3.2
재화수출	2.9	8.4	4.3	1.4	1.7	1.5	0.7
재화수입	-0.3	-1.3	3.6	3.0	0.9	1.9	2.0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은행(IB) 전망

구분	'25년(E)
IMF	2.0
산업연구원	2.1
KDI	2.0
한국금융연구원	2.0
골드만삭스	1.8
JP모건	1.7
노무라	1.7
씨티 ¹	1.5

한국 경기종합지수 추이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25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가능성 존재

- 한국은행은 보호무역 기조 강화,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원달러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유가 하락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외국계 IB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한국의 수출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최근 정치 불안으로 주식 및 환율 변동성 등 금융리스크가 부각되는 바, 장기화 시 '25년 내수와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

Source: 한국은행(2024.11), '경제전망 Indigo Book',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Note: 씨티는 '24년 12월 11일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24년 12월 들어 경기심리가 예상대비 급격히 악화되며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해 '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1%p 하향 조정함

반등이 요원한 선행지수·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은 견조한 반면, 소매판매, 건설 부문 어려움이 지속되며 향후 경기 개선이 제약
- '24년 10월 전산업생산지수(113.0)는 전월대비 0.3% 줄어들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

Source: 통계청

Note: 순환변동치는 기준(100) 상회 시 추세 이상, 하회 시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국 경제》 Issue 1.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 경기·환율 등에 따른 불확실성

미국은 긴축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 중으로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며 금리 인하 속도 신중하게 인하 전망. 한국은 '25년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나, 미국 통화정책과 국내 경제성장·환율에 따른 경로 불확실성 상존

미국 기준금리 및 장기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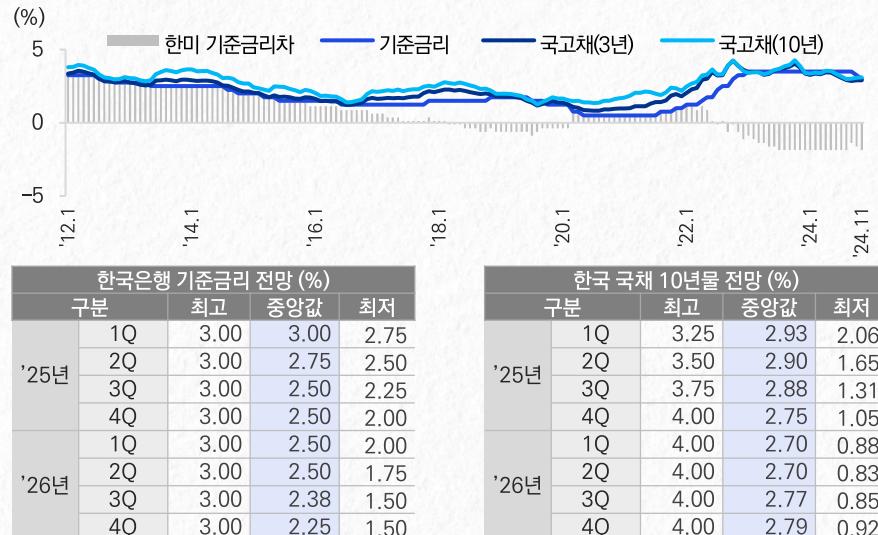
미국채 10년물 전망 (%)				
구분	최고	중앙값	최저	
'25년'	1Q	4.75	4.26	3.63
	2Q	4.75	4.10	3.47
	3Q	5.00	4.05	3.33
	4Q	5.50	4.05	3.27
'26년'	1Q	5.50	3.94	3.17
	2Q	5.50	3.94	3.07
	3Q	5.25	3.94	3.02
	4Q	5.00	3.94	2.95

금리인하 사이클 본격 진입 … 향후 점진적 인하 전망

- '24년 9월 19일 연준은 4년 반 만에 빅컷(기준금리 0.5% 인하)에 이어 11월에도 0.25%p 기준금리 인하. '24년 11월 연준 의원들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24년 11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며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 발표 직후 CME Fedwatch의 '24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성이 기준 86%에서 96%로 상승

Source: Fred, CME Fedwatch, Bloomberg(2024.12.11 기준)

한국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및 전망



국내 금리인하 기대先반영되며 시장금리는 하락세 … '25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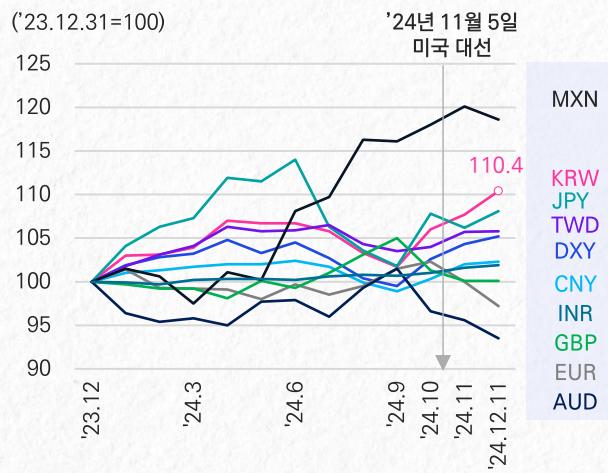
- 금리인하 기대로 '23년 11월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된 후 재상승. '24년 6월 중단기 금리 하락
- 한국은행은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24년 10월과 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단행
- '25년 한국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나, 경기 하방 압력·환율 상승압력으로 경로 불확실성 상존

Source: 한국은행, Bloomberg(2024.12.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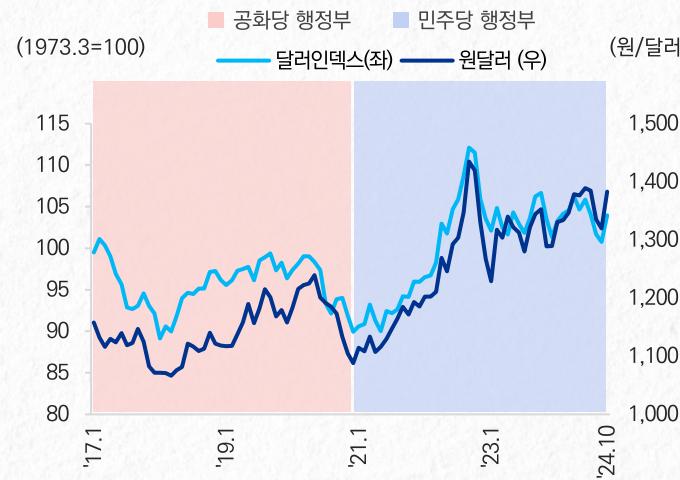
한국 경제》 Issue 2. 원달러 환율 당분간 높은 수준 전망되므로 대비 필요

미국 예외주의로 '24년 하반기 이후 강달러 기조 지속이 전망되나, 변동성 확대 가능.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안이 일정 수준 해소되는 시점까지 1,400원을 상회할 가능성에 대비 필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한 변동성 완화 기대

주요국 환율 변화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및 전망



달러인덱스 전망 (1973.3=100)			
구분	최고	중앙값	최저
'25년	112.1	107.4	104.0
	111.1	107.0	103.8
	110.0	106.0	102.1
	110.5	105.0	103.3
'26년	110.0	101.9	97.2

원달러 전망 (원/달러)			
구분	최고	중앙값	최저
'25년	1,465	1,420	1,290
	1,465	1,437	1,270
	1,481	1,414	1,290
	1,500	1,385	1,280
'26년	1,500	1,350	1,250

'24년 하반기 강달러 지속 ... 엔화·원화 약세

- '24년 상반기 연준 통화정책 전환 기대, 엔화 강세,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 약세
- '24년 하반기 미국 양호한 고용 지표와 인플레 입력 외화 가능성 등 달러화 강세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 경향과 약세 기조

Source: Bloomberg

Note: 달러대비 각 통화 지수화하였으며, 각 시점 말 기준

미국우선주의 하 일정기간 강달러 전망되나, 변동성 확대 유의 ...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당국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예정

- 트럼프 2기, 지정학적 리스크, 안전자산 선호 및 빠른 통상정책 시행 가능성으로 초반 강달러 현상 전망. 추후 미국 통화정책 방향, 경제성장 수준 및 재정·무역수지 규모 등을 고려해 환율·관세·무역정책을 활용할 소지가 있는 바, 달러가치 변동성 확대에 대비 필요
- '25년 12월 5일 이후 국내 정치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현재 외화 유동성 관련 위기 장후는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당국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개선을 위해 은행 선물환포지션 확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한은-국민연금공단 간 외환 스왑 규모 확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등의 방안 검토 중. 단기적 환율 하향 안정화 및 중장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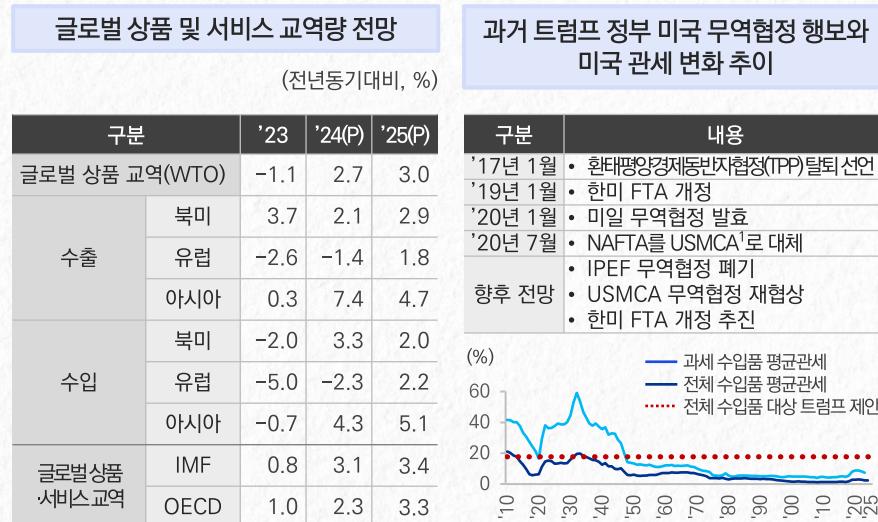
Source: Bloomberg(2024.12.11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4년 1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중국·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한국 경제》 Issue 3.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점증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글로벌 교역은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현실화 등으로 관세 전쟁 전개 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전망

글로벌 상품·서비스 교역량 전망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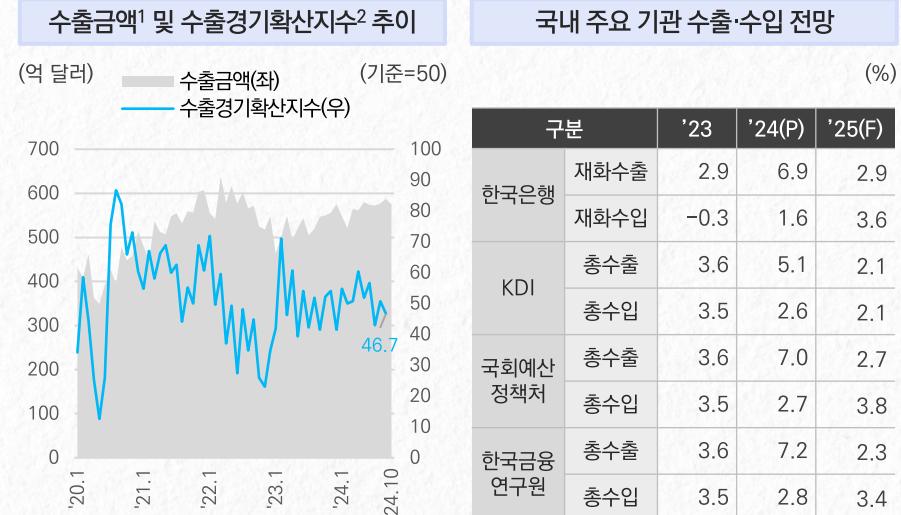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글로벌 교역 하방 리스크 지속

- WTO는 유럽 수요는 약화되나 아시아 수요 강세가 유지되며 '25년 글로벌 상품 교역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상품에서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진행되며 서비스 교역은 성장세가 예상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보복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소지

Source: WTO(2024.10), IMF(2024.10), OECD(2024.5)

Note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수출금액·수출경기확산지수 추이와 국내 주요 기관 수출 전망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예상 … '25년 한국 수출 피크아웃(Peak out) 전망

-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호실적을 나타내며 '24년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한 575.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선행지수인 수출경기확산지수는 '24년 10월 46.7로 기준(50) 하회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중국 경제성장 저하,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정치·경제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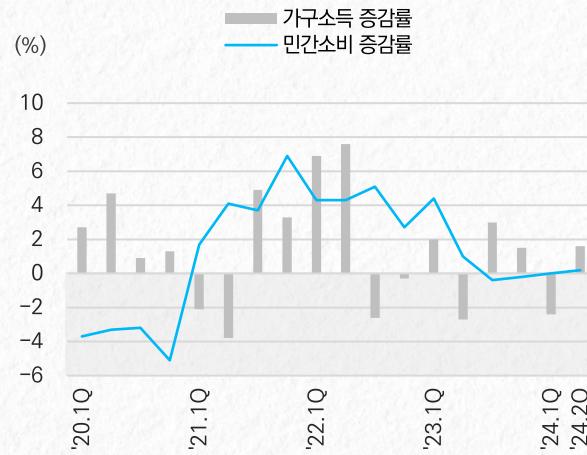
Source: 통계청,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KDI,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금융연구원

Note 1: '24년 10월 수출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 Note 2: 확산지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확장 국면, 낮으면 수축 국면의 의미

한국 경제》 Issue 4. 회복 조짐 더디어지는 내수시장

금리 인하, 수출 개선 등으로 '25년 민간소비 성장폭이 개선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 내수 부진의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나타나며 '내수 침체-고용 둔화' 악순환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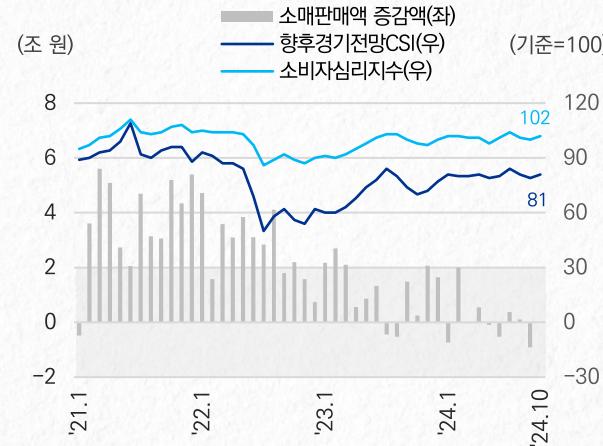
가구소득¹과 민간소비 증감률² 추이



민간소비 소폭 증가 ... '25년 개선 여부는 불투명

- '24년 2분기 가구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여 반등했으며,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그침
- 잠재성장을 하락세와 고물가 지속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
- 전반적 경기 하락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선 여부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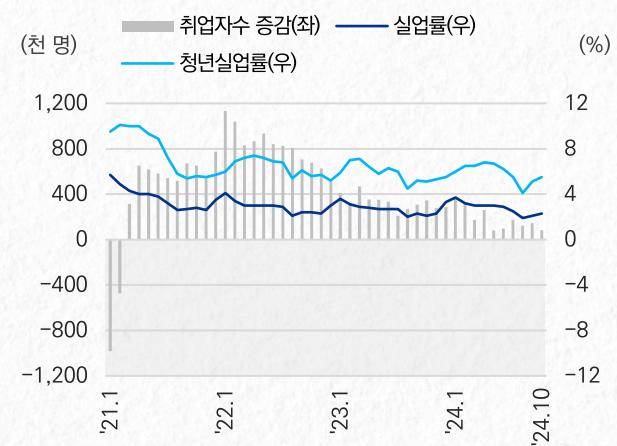
소매판매액 증감 및 소비자 심리 추이



'긍정'보다 '부정'에 가까운 향후 경기 전망

- '24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를 기록했으나, 향후경기전망CSI(81) 등 대부분의 구성지수가 100을 하회
- '24년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9% 원 감소하여 실제적인 재화 소비가 하향하며 내수 부진 신호가 드러나고 있음
-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는 '24년 12월 81.09로 '22년 10월 이후 최저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내수 부진 지속 시 고용 지표 추가 둔화 가능성

- '24년 10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 3천 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실업률은 전월대비 0.2%p 상승한 2.3%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
- 청년 실업률 상승, 건설업 일자리의 3개 분기 연속 감소 등 향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경우 관련 업종의 고용 상황도 악화될 소지

Source: 한국은행, 통계청

Note 1: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 기준, Note 2: 증감률은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Source: 통계청, 한국은행

Note: 소매판매액 증감액은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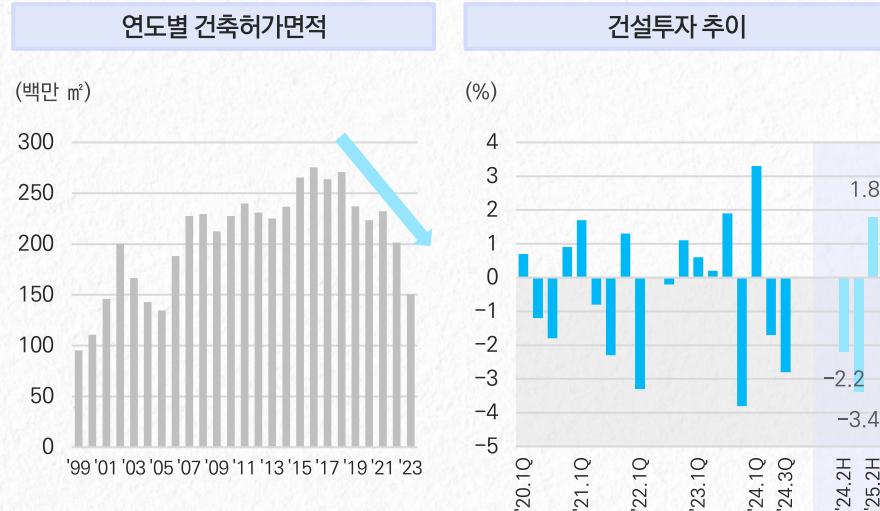
Source: 통계청

Note: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한국 경제 》 Issue 5. 부동산PF 부실화 여진과 건설투자 마이너스 성장 전망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수주·착공 모두 최근 수년간 하락 추세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누적되며 부동산PF 부실 여파는 진행형이며 이는 지역별 주택 가격에도 반영 예상

건설투자 부문 마이너스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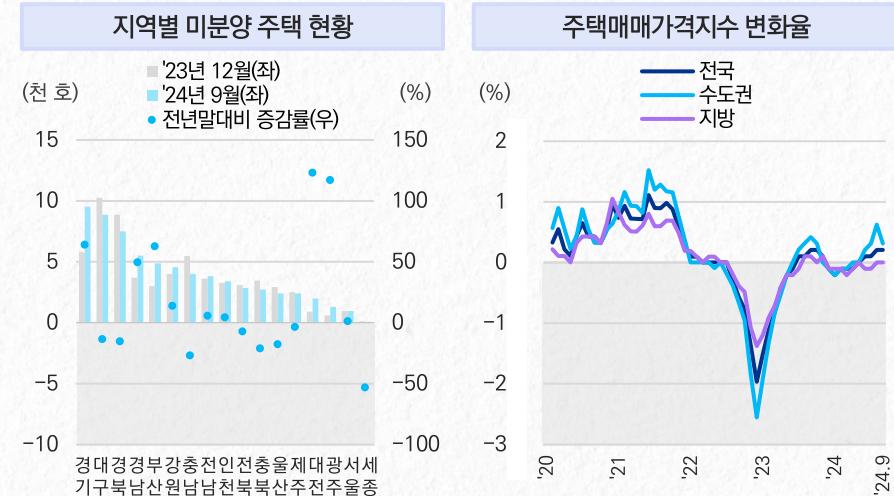
건설투자 부문 마이너스 성장 전망

- '23년 건축허가면적은 1,505억 m²로 '25년 건설투자와 부동산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건축수주와 착공도 '22년 이후 감소세로 건설 감소 흐름 예상됨
- 한국은행은 '24년 8월 건설투자 부문 성장률을 '24년 하반기 △2.2%, '25년 △0.7% (상반기 △3.4%, 하반기 1.8%)로 전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

Source: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Note: 건설투자 추이 '24년 하반기부터 '25년 하반기는 전망치

미분양 주택 현황과 주택 가격 추이



미분양주택 누적 지역 중심으로 PF 부실에 따른 여파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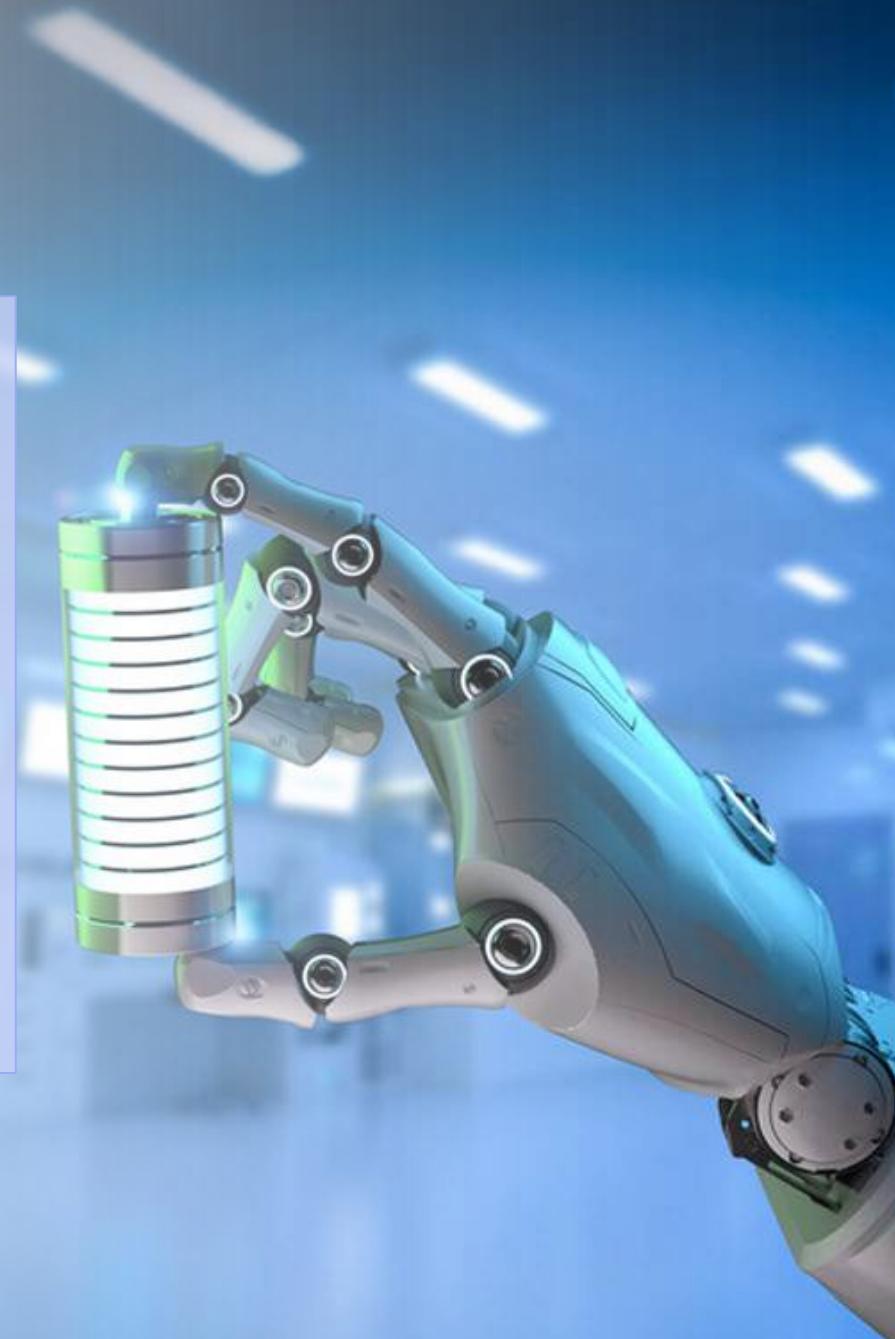
-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23년 말 6만 2,489호에서 '24년 9월 말 6만 6,776호로 7%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미분양주택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경기(3,718호), 경남(1,825호), 부산(1,874호) 등에서 크게 증가
- 향후 미분양 해소 등에 따라 주택가격 역시 지역별 차별화 전망

Source: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Note: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전월대비

III

2025년 비즈니스 트렌드



2025년 키워드로 본 비즈니스 트렌드 ① AI 확산

Trend 01



AI 확산

-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분야가 늘어나며 반도체 등 AI 구현을 위한 인프라 경쟁 확대
- AI를 통한 기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 향상 효과 기대
-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출시 지속

반도체

-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경쟁 확대
 - 우수한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가진 반도체의 확보가 AI 시대의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제품 경쟁 확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스마트폰

- 온디바이스 AI 기반 기술 경쟁 본격화
 - 디바이스 내에 AI 모델을 탑재하여 외부 연결 없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출시 지속
 -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 이미지 편집 등의 기능을 탑재한 제품 공개

제약·바이오

- AI 신약개발 경쟁 본격화로 공동개발/협업 증가
 - 글로벌 빅파마는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전략을 통해 생성형 AI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JW중외제약 등 국내 제약사도 바이오테크·IT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AI 기반 혁신신약 공동개발에 나섬

항공

- 스마트 MRO(정비·수리·운영) 및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AI 활용 확대
 - 대한항공은 AI 기반 드론 개발로 항공기 외관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료 수요 예측, 비행경로 최적화 등 AI를 활용한 스마트 MRO 사업 강화
 - 국내 항공업계는 기존 챗봇 서비스 외 다국어 고객 맞춤형 상담, 수하물 추적 등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금융

- 금융 거래 안전 강화 및 고객 관리를 위한 AI 활용 고도화
 - 다양한 케이스로 발생하는 금융사기 등의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를 위해 AI 기술의 활용이 이어지고 있음
 - KB금융, 교보생명, BC카드 등 국내 금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정보 및 금융 이슈 전달 서비스를 개발 중임

유통

- 유통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AI를 활용하여 예측 정확도 향상 및 효율성 강화
 - AI가 실시간으로 날씨, 경쟁업체 가격 등 수요 결정 요인을 모니터링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량 등 데이터를 종합하여 발주량 결정. 상황 변화에 따른 실시간 가격 책정으로 최적화된 가격 전략 도출
 - SSG닷컴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 상품의 가격최적화 알고리즘을 운영 중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키워드로 본 비즈니스 트렌드 ② 에너지 전환

Trend 02



에너지 전환

- 화석연료의 급격한 퇴출보다는 탄소배출의 감축에 집중
- 브릿지 에너지로서 가스와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역할 확대
- 탈탄소를 이끄는 넷제로 혁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에너지·유틸리티

- 가스와 원자력의 비중 확대**
 -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브릿지 에너지로서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역할 확대
 - SK가스는 한국석유공사와 1조 2,000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국내 유일의 LNG·석유 복합 에너지터미널 준공('24년 11월)
-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넷제로 혁신기술 개발**
 - 호주의 에너지기업 산토스와 비치 에너지가 세계 최저 비용(탄소 1톤당 24달러 예상)으로 운영될 물바 CCS1 프로젝트 진행 중
 - 기후테크 기업 클라임웍스는 연간 3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 DAC² 플랜트 가동('24년 5월)

조선

- LNG·LPG 운반선 수주 확대**
 - '24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약 70%를 차지
 - 국내 조선 3사³는 '24년 3분기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13년 만에 연간 흑자 기록
- 진화 중인 암모니아 연료 선박**
 - 삼성중공업은 그린 암모니아 연료 생산과 안전활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MOU 체결('24년 11월)
 -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LPG(액화 석유가스)운반선 2척을 수주한 HD한국조선해양은 암모니아 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 기술을 독자 개발('24년 6월)

항공

- 친환경 항공기의 도입**
 - 티웨이항공은 글로벌 항공기 리스사 아볼론과 '26년부터 친환경 항공기 5대 순차 도입 계약 체결('24년 9월)
 -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연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보잉의 친환경 항공기를 추가 도입 ('24년 10월)
-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 유럽 항공업계는 '25년부터 2%의 SAF 혼합 의무비율을 제시하며 '50년까지 70%까지 목표 확대
 - 대한항공이 국적 항공사 최초로 국산 SAF를 일반 항공유와 혼합하여 운항 시작('24년 8월)

금융

- 넷제로 혁신기술에 투자하는 대규모 기후기술펀드 조성**
 - 국내 6대 은행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3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기후펀드를 결성('24년 4월)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 즉 기후테크 관련 벤처기업이 주력 투자 대상이며, '25년부터 투자 개시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는 주로 산업 공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지점에서 포집해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땅속이나 해양에 저장하는 기술, Note 2:DAC(Direct Air Capture)는 대기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 Note 3: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2025년 키워드로 본 비즈니스 트렌드 ③ K-wave

Trend 03



- K-콘텐츠로 시작된 인기가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산하며,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영역에서 한국 제품의 인지도 상승
-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조업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적극 공략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장르를 넘나들며 지속. 넷플릭스의 '24년 상반기 시청기록 조사 결과 한국 콘텐츠의 비영어권 시청 비중은 10.6%로 1위 기록
- CJ ENM은 국내외에서 흥행을 거둔 콘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24년 인기 예능 '윤식당'의 포맷 판권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드라마 '시그널'의 인도 리메이크 버전 제작·방영

식품

-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지속 상승하며 K-만두·소스·빙과 등에 이목 집중
 -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등지로 판로 확장하며 성과 달성
 - 빙그레는 자사 주력 제품 '메로나'를 필두로 해외 시장 공략 가속화. 식물성 메로나, 할랄 인증 제품 등을 개발·공급하며 K-빙과의 세계적 확장 주도

화장품

-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 상승
 - 구다이글로벌(조선미녀)은 공격적으로 K-뷰티 브랜드 M&A 추진. '24년 티르티르, 라카, 크레이버를 잇따라 인수하며 외형 확장 도모
 - 한국콜마는 미국 현지 인프라 강화 도모. '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제2공장을 건립 중

건설

- 건설업계는 원전·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K-모듈러 주택 등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K-건설 위상 제고
 -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각각 체코('24.07), 불가리아('24.11) 원전 사업을, 현대엔지니어링은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24.10)을 수주
 - GS건설은 해외 모듈러 전문기업 인수 및 신공법 개발로 글로벌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조선

- K-조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며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따라 미국 함정 MRO 시장이 조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
 -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24년 7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합정정비협약(MSRA) 체결
 - 한화오션은 '24년 6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미국 해군 7함대 배속 급유함의 정기수리 사업 수주

제약·바이오

-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한국 바이오업계가 대체 공급처로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내외 CDMO¹ 생산기지 확대 활발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년 4월부터 5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32년까지 132만 리터 이상의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 중
 - 셀트리온은 '24년 CDMO 자회사를 설립하고, '25년 본격적인 설비 증설 및 영업에 나설 계획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개발생산)

2025년 키워드로 본 비즈니스 트렌드 ④ 인구구조 변화

Trend 04



인구구조 변화

-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 기회 모색
- 맞춤형 의료 서비스·식단·금융 설계 등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전략 마련
- 외국인, 난임 환자 등 확대되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고객 세그먼트를 세분화하여 서비스 제공

건설	식품	금융	제약·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 시니어층의 수요 증가에 맞춰 시니어 하우징 개발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건설은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을 내세우며 시니어타운 개발 진행 중(24년 부산, '25년 마곡 준공 예정). 시니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의료 서비스 운영 계획 - 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시니어 하우징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 및 공동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24년 6월 신한라이프케어와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케어푸드·시니어푸드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그린푸드는 당뇨, 암, 신장질환 등 질환맞춤식단을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이며, 저당·고단백·저칼로리 등 건강 관리 목적에 맞춰 식단 세분화 - 풀무원은 '24년 4월 개인 맞춤형 식단 제공 플랫폼 '디자인밀'에 일대일 비대면 영양상담 서비스 추가. 연령대별, 섭취 목적별, 질환별 세분화된 개인 맞춤형 식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 자산 관리 특화 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은 은퇴설계, 상속증여, 유산정리 등 시니어 케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 또한 시니어 및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를 각각 개점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 KB라이프생명은 재가요양시설 외 프리미엄 요양시설 및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며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구축 사업 강화 - 토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관련 R&D 및 투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젠은 '23년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조기 배란 억제제 가니렐릭스 개발 이후 LG화학에 공급 중이며, '24년 10월 美 FDA에 원료의약품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등 난임 시장 지속 공략 - 한국오가논은 자사 난임 치료제의 패키지에 자가주사법 안내 영상을 담은 QR 코드를 삽입하며 난임 환자의 부담 감소에 기여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키워드로 본 비즈니스 트렌드 ⑤ 공급망 안정화

Trend 05



-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이전, 영업, R&D 강화
- 우방국·역내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수직계열화 및 핵심소재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JV, 수입국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 움직임

-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패권 갈등 과정에서 TSMC(미국 애리조나), 삼성전자(미국 텍사스), SK하이닉스(미국 인디애나주) 등이 미국 내 신규 생산 공장 건설 추진
- TSMC는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공급 중단 발표(25년 11월 11일)

자동차

• 핵심부품(소재) 수직계열화

-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수산화리튬 가공·전구체 생산·폐배터리 재활용 고순도 산소/수소 공급 등 주요 사업 영역 수직계열화 구축
- GM, 캐나다 리튬 채굴 기업 리튬아메리카스와 미국 네바다주 훈볼트카운티 소재 리튬 광산 '태커 패스' 개발 위한 합작법인 설립 추진

에너지

• 수입국 다변화 추진

- 유럽 기업들은 러시아산 L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LNG 의존도를 높여왔으나, 최근 노르웨이와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으로 공급망 재편 추진
-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 오만과의 LNG 장기계약 만료(24년 말)를 앞두고 미국산 LNG로 수입국 다변화 검토 중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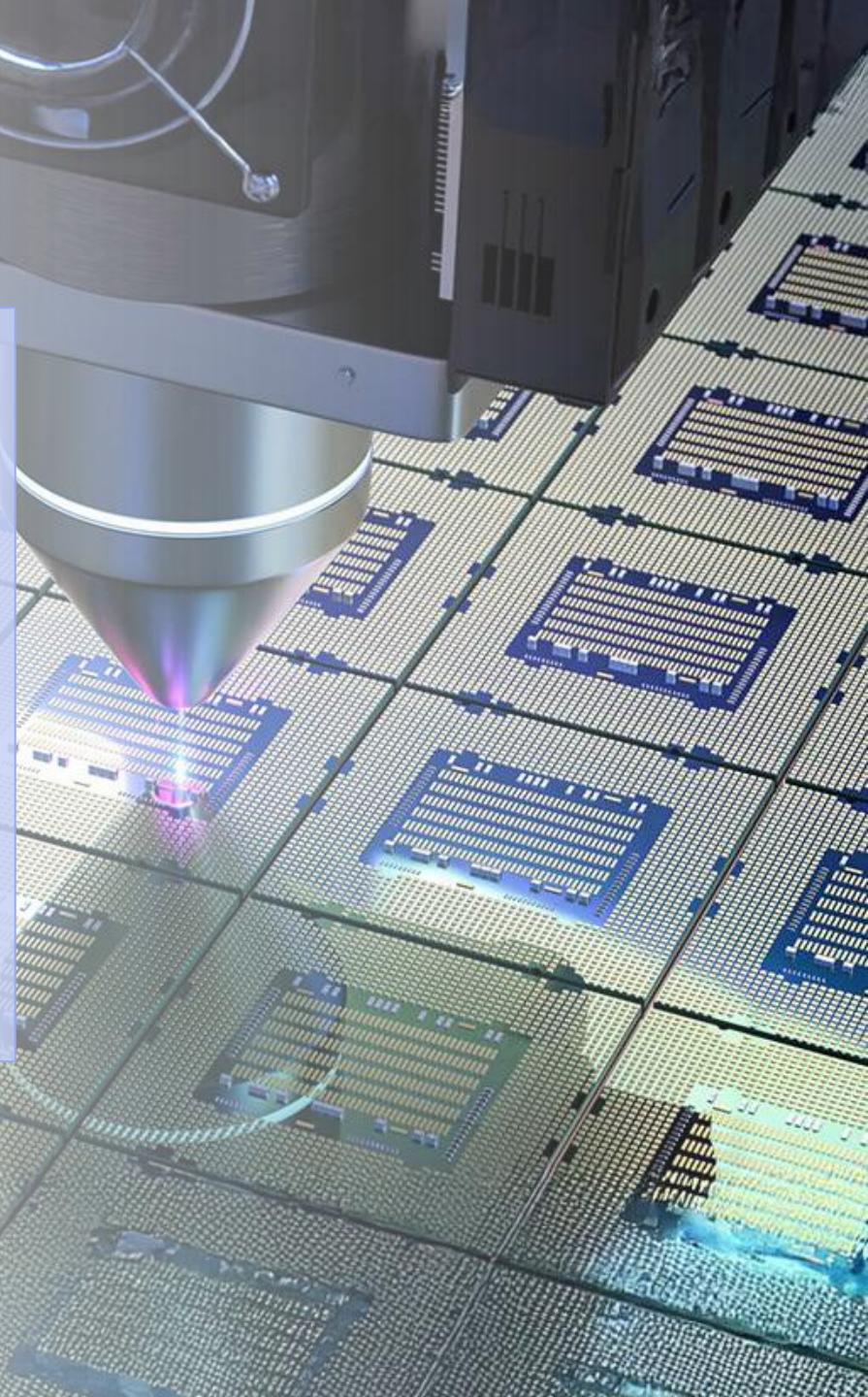
• 아시아 시장 확보 및 한국으로의 수요 이전 계획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항공엔진·부품공장에 6,000만 달러 추가 투자
- 사프테크닉스케이는 미국 아틀라스 항공과 합작법인 설립 후 인천공항 내 대규모 항공정비 센터 구축 계약 체결(22년 12월). 아시아 권역 항공정비 수요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항공정비 허브 건설 계획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IV

2025년 산업별 전망





반도체》'25년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IC 제품군 위주 성장 전망

'25년 반도체 시장은 IC 제품군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I 시대 대규모 데이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 처리 역량 및 전력 효율 강화, 발열 관리 등의 기술력 확보가 주요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을 전망

'25년 반도체 산업은 IC 제품군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AI 시대 데이터 처리 수요 대응을 위한 반도체 분야가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할 전망

- '24년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Integrated Circuit) 제품군의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25년에는 모든 반도체 제품군에서 성장세가 나타날 것 전망
- '24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25년에는 전 지역에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제품	시장 규모(백만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개별 반도체	35,530	31,546	33,377	4.5	-11.2	5.8
광전자	43,184	42,092	43,705	-1.6	-2.5	3.8
센서	19,730	18,732	20,034	-9.4	-5.1	7.0
IC	428,442	534,499	600,069	-9.7	24.8	12.3
- 아날로그	81,225	79,433	83,157	-8.7	-2.2	4.7
- 마이크로	76,340	79,291	83,723	-3.5	3.9	5.6
- 로직	178,589	208,723	243,782	1.1	16.9	16.8
- 메모리	92,288	167,053	189,407	-28.9	81.0	13.4
전체	526,885	626,869	697,184	-8.2	19.0	11.2

Source: WST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5년 반도체 산업 주요 이슈

AI 시대 주목해야 할 반도체 분야

분야	주요 이슈	국내 주요 기업 동향
AI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용이한 병렬형 구조 등이 탑재된 AI 반도체가 최근 반도체 시장의 핵심 요소 GPU 기술 기반의 AI 가속기 및 HBM 기술 기반의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기술로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기반의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강화한 HBM 기술 기반 시장 확대를 추진 중 국내 AI 반도체 펩리스 스타트업 리밸리온과 사피온은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2월 1일 통합 법인 출범
전력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처리 시설의 전력 소비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 계통 부담으로 전력 관리 인프라에 대한 관심 증가 SiC(실리콘 카바이드), GaN(질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의 전력 반도체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 인프라 운영을 위한 핵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N 기반의 전력 반도체 개발을 위해 SK카파운드리와 DB하이텍에서 '25년 중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 추진 중 삼성전자는 '23년 전력반도체 TF 신설 이후 전력반도체 사업팀을 구성하는 등 전력 반도체 사업 확대 중
첨단 패키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능 반도체의 사용이 확대되며 반도체 소형화, 발열 관리 등의 기능을 가진 기술 개발 주목 모바일 디바이스의 AI화로 인해 저전력 반도체의 소형화, 발열 관리 등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11위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은 AI 반도체의 수평 연결을 위한 2.5D 패키징 기술 개발 중 글로벌 패키징 기업 앰코(세계 2위)와 JCET(세계 3위) 등은 인천에 첨단 패키징 공장 확장 등 투자를 확대 중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디스플레이》 중국 디스플레이 굴기로 한국 패널 수출 정체

글로벌 디스플레이 '25년 시장 규모는 1,404억 달러로 전년대비 5.3% 성장을 보이며 역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회복세 대비 중국 기업의 굴기로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정체 지속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위 중국, 2위 한국 기조 이어질 전망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25년 세계 시장 1,404억 달러, 전년대비 5.3% 성장

- '24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대비 13%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25년 5.3%의 한 자릿수 성장의 시장 정체 지속 전망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 등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 정체 지속

- '21년부터 중국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한국은 2위로 내려옴
- '23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 47.9%, 한국 33.4%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금액 기준)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 기타에 마이크로LED 포함,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국적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금액 기준)

국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중국✓	21.0	25.0	30.9	36.7	41.3	42.5	47.9
한국✓	44.4	42.6	40.4	36.8	33.3	36.9	33.4
대만	22.9	24.5	21.9	22.5	23.1	18.2	16.7
일본	10.8	6.7	5.9	3.6	1.9	2.1	1.7
기타	0.9	1.2	1.0	0.5	0.4	0.3	0.3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 SHARP는 '17년 매출부터 대만 국적으로 포함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정체 국면

'22년부터 전년대비 수출 규모가 역성장을 나타내는 등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감소세

- 한국 디스플레이 수출 중 OLED 비중은 '19년 50%에서 '23년 75.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OLED가 수출을 주도했지만,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임
-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 영향 등에 따라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은 '18년부터 '20년까지 역성장을 보임. 이후 '21년 수출 증가를 회복을 나타냈지만 '22년부터 다시 역성장 국면이 이어지며 추세적 감소세가 나타남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과의 경쟁 격화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차별화 전략 필요

- マイクロ LED(발광다이오드), 투명 디스플레이 등 신제품·신시장 창출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실행이 가속화될 전망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동향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스마트폰》 AI가 스마트폰 시장의 반등을 위한 혁신 요소로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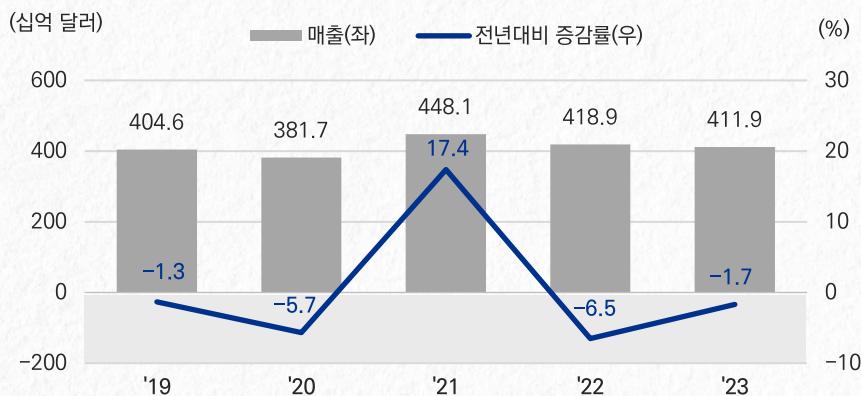
'25년 스마트폰 시장은 '21년 이후 3년 만에 반등이 예상되는 '24년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5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시장의 반등 요소로 주목됨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 추이

AI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시장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하며 '25년에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여파로 '21년 증가했던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은 '23년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4년에는 성장세 전환이 예상
- '24년 주요 제조사를 통해 출시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25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반등을 이끌 요인으로 주목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연도별 매출



Source: Statista, Counterpoint Research,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 이슈

스마트폰 산업 내 주요 기업의 온디바이스 AI 확대 움직임

기업명	주요 특징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월 공개한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온디바이스 AI 기능 분격 탑재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AI 기능 탑재를 통한 기기 다변화와 20여 개 언어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6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 기능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AI 형태의 AI 서비스 'Apple Intelligence' 공개 후 10월 정식 출시 진행 • 미국식 영어를 우선 제공하며 한글을 포함한 언어 다변화는 '25년 전망
퀄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9월 NPU 등 AI 기능이 강화된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바일 시스템 온 칩(SoC)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공개하며 온디바이스 AI 기능 구현을 위한 추론 성능 강화를 목표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온디바이스 AI의 기존 AI 서비스 대비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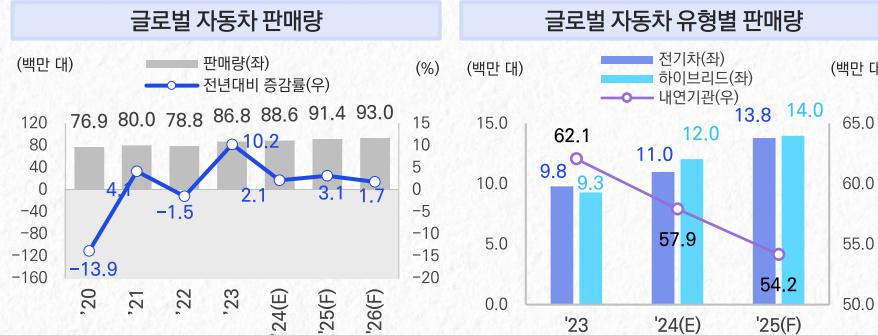
장점	주요 특징
AI 모델 분석 속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디바이스 AI는 외부 통신 없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내부에서 분석을 진행하는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분석 속도 향상 기대
외부 시스템 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를 모델 업데이트 용도로만 사용 •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비용 감소 효과 기대
데이터 보안 우려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개별 사용 데이터가 디바이스 외부로 전송되지 않음 • 외부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우려 적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Cloud 자동차》 제한적인 성장세, 신성장동력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점

전기차 판매는 예상보다 더디나 하이브리드 판매가 확대되며 '25년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소폭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차량뿐 아니라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주도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글로벌 완성차 판매 전망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예측보다 저조함에 따라 '25년에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둔화가 지속될 전망

-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는 주요국 환경 규제 완화(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연도 연기 등), 전기차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 등에 기인
- 완성차 기업은 전기차·하이브리드 내 차급·차종 다양화 및 신형 시장 진출·투자 본격화**
- 현대차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기업은 저가형 전기차 출시 및 하이브리드 라인을 강화하며 중형에서 소형 대형으로 차급 다양화
- 중국 로컬 업체를 제외한 완성차 기업은 중국 내 판매 부진에 따라 신형 시장 진출을 꾀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인도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투자 본격화

Source: LMC(2024.11),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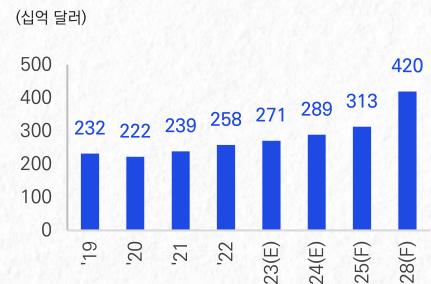
Note 1: 전기차는 BEV(Battery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는 PHEV+FHEV(Plug-in Hybrid EV, Full Hybrid EV), 내연기관은 IC(Internal Combustion) 판매량 기준, 전체 판매량 내 비중이 낮은 MHEV(Mild Hybrid EV)와 EREV(Extended Range EV) 등은 제외

'25년 자동차산업 주요 이슈

주요 국가 자율주행 및 센서 기술 시장 규모



글로벌 SDV 시장 현황 및 전망



미국과 중국은 투자 확대·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25년 자율주행 시장 주도 예상

- 웨이모는 '24년 6월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 후 1주에 5만 건 이상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구글은 웨이모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예정
- 바이두는 '24년에 중국 도시 11곳에서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로보택시를 운영 중으로 여기에는 '25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우한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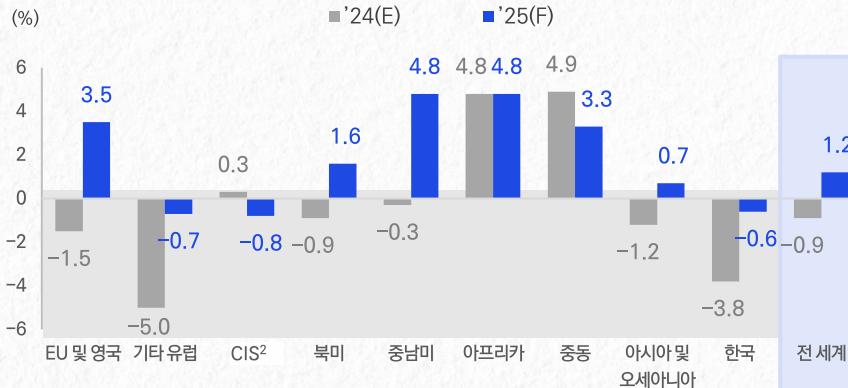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장은 완성차 기업의 적극적 투자로 시장 확대

- 현대차는 SDV 전용 OS를 개발 중으로 '25년 소프트웨어 릴리즈, '26년 차량 탑재 목표
- 토요타는 자체 차량용 OS인 'Arene' 개발 후 '25년 상용화 예정
-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자개발한 'MB.OS'를 '25년 상용화 목표

철강》 공급과잉 속 지속된 수급부담과 수익성 저하 우려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로 '25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1.2% 늘면서 소폭 회복될 전망이나 국내에서는 건설수주 회복으로 봉형강 수요는 개선되는 반면, 후판 등은 중국산 저가 공급과잉으로 수급부담 지속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¹



'25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로 소폭 회복세 전망

- '25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17억 7,150만 톤으로 예상
- 중국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여전히 수요가 감소세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 인도를 중심으로 수요 견인 전망

'25년 국내 철강 수요는 중국산 철강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수급부담 지속

- 전방산업 수요 부진, 공급과잉으로 위축된 국내 철강업계는 '24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

'25년 국내 철강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

원재료 가격은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속에서 하향 안정세

철광석 가격 전망



원료탄(유연탄) 가격 전망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5년 국내 건설수주 회복으로 봉형강 제품 수요 개선 전망

- 금리 인하 등으로 국내 건설수주가 소폭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연되었던 미착공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
- 따라서 철근, H형강 등 봉형강 제품 수요가 개선되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그동안의 수요 부진과 높은 재고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중국산 저가 후판과의 경쟁 속에서 암울한 국내 선박용 후판의 업황

- 조선 건조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침투로 '24년 국내 후판 수요는 800만 톤을 밟을 것이며 후판의 부진한 업황은 '25년에도 지속될 전망

Source: 세계철강협회(2024.10),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대비 증감률, Note 2: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형성된 독립국가연합을 지칭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조선·해운》조선 신규분야 수주 기대, 해운 선종별 희비 교차 전망

'25년 조선산업은 전반적인 수주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나,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미국 MRO 시장 확대에 따라 상황 개선의 여지 상존. 해운산업은 전반적인 조정 추세 속에서 선종에 따라 시황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

'25년 조선산업 전망

'25년 한국의 수주량은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수요 감소로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

- '25년 국내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대비 9.5% 감소한 950만 CGT, 수주액은 1.6% 감소한 31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하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호전 가능성이 있으며,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미국 MRO 시장 확대에 따라 시장 반등의 여지 상존

- 지난 몇 년간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대체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조 계약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주 잔고 물량이 평균 3.6년치를 웃돌고 있음
- '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 MRO 분야 한·미 협력의 필요성 강조,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확대 기대감 고조

'25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과 한국 수주량 현황 및 전망

구분	'23년	'24년(E)	'25년(F)
글로벌 발주량 (백만 CGT)	48.2 (↓7.8%)	59.0 (↑22.3%)	42.0 (↓28.8%)
한국 수주량 (백만 CGT)	10.1 (↓39.4%)	10.5 (↑4.4%)	9.5 (↓9.5%)
글로벌 발주액 (억 달러)	1,292 (↓7.5%)	1,750 (↑35.4%)	1,380 (↓21.1%)
한국 수주액 (억 달러)	296 (↓35.4%)	315 (↑6.5%)	310 (↓1.6%)

Source: Clarksons,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Note: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5년 해운산업 전망

컨테이너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 강화와 공급과잉으로 시장 위축 가능성 상존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 확대
- '24년에 이어 '25년에도 1만 2,000TEU급 이상의 대형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주 물량이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공급과잉의 위험성 증가

LNG선, 선복량 증가 속도가 물동량 증가를 압도하며 공급과잉 현상 발생 가능



- '25년 LNG선 신조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선복량 증가 속도가 물동량 증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25년 LNG선의 선복 증가율은 8.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러한 LNG선의 신조선 인도 물량 증가는 '27년까지 지속될 예정

벌크선, 중국의 경기부양책 성과에 따라 시황이 좌우될 전망



-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며 철광석, 석탄, 곡물 등 수요 증가 여부가 벌크선 시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25년 벌크 물동량은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해 선복량 대비 인도량은 3.4%로 전망되어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

탱커, 중동의 원유생산 증가로 비교적 안정적인 업황이 유지될 전망



- OPEC+가 '25년부터 자발적 감산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중동산 물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탱커의 '25년도 선복량 증가율은 1.9%로 비교적 낮은 수치가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업황이 기대

Source: Clarksons,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정유·화학》 단기적 실적 개선은 불확실, 주요 제품 수급 불균형 지속

글로벌 정제설비의 대규모 폐쇄가 예상되면서 정유 수급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정유 업계의 단기적 실적 개선까지는 불확실한 전망. 한편, 에틸렌 중심의 주요 화학제품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국내 수출 타격이 예상됨

글로벌 주요 정제설비 동향

미국, 유럽, 중국 내 설비 폐쇄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정제설비 폐쇄 규모 확대 전망

- 필립스 66(Phillips 66), BP,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 등 노후화된 정제설비의 셧다운으로 '25년 원유증류장치(CDU)¹ 순증 물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전체 정유 생산능력의 약 3%를 차지하는 페트로차이나(PetroChina)의 대규모 정제설비도 '25년 폐쇄 계획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정제설비 폐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정유 수급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단기적 실적 개선까지는 불확실**
- '25년 정제설비 구조조정에 관한 발표가 이어지면서 국내 정유 수급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국제유가 변동성, 주요국 수요 부진 등 국내 정유 업계 수익성에 대한 하방 압력 존재

'25년 글로벌 정제설비 폐쇄 계획

국가	지역	기업	정제설비 폐쇄 예상 규모 (1,000b/d)	발표 일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필립스 66(Phillips 66)	138.7	'24.10
	휴斯顿(Houston)	라이온델바젤(LyondellBasell)	268.0	'24.11
독일	겔젠키르헨(Gelsenkirchen)	BP	257.0	'24.03
	베셀링(Wesseling)	쉘(Shell)	147.0	'24.01
영국	그레이인지머스(Grangemouth)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	150.0	'24.09
중국	다롄(Dalian)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200.0	'24.10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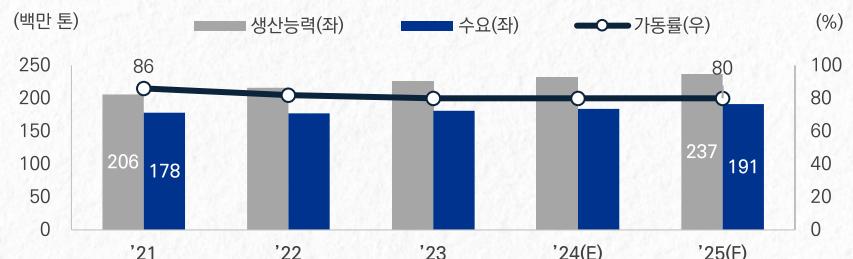
Note 1: Crude Distillation Unit

글로벌 주요 화학제품 동향

글로벌 에틸렌(Ethylene) 수급은 수요둔화, 중국의 설비 증설에 따른 자급률 상승 등으로 공급과잉¹이 지속될 전망

- 국내외 경기부진 및 환경규제에 따라 에틸렌 생산능력 대비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로 공급 부담 지속
- 특히, 중국은 에틸렌을 비롯하여 기초유분 전반의 자급률을 100%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증설 투자를 추진하여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 공급과잉 심화, 가격 경쟁력 하락 등에 따라 국내 수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 에틸렌 시장의 공급과잉 지속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중국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할 가능성 존재
- 중동의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COTC) 프로젝트에 따른 공급과잉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25년 국내 기업의 수익성 회복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에틸렌 수급 현황 및 전망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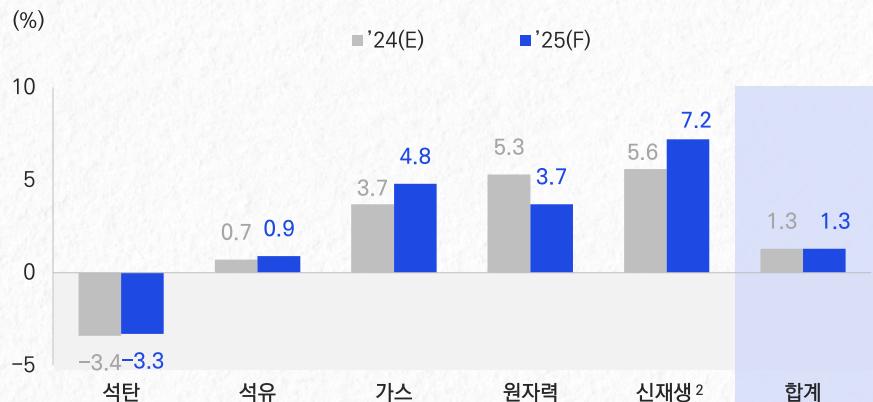
Note 1: 생산능력 > 수요



에너지·유틸리티》 다시 별이 드는 에너지 시장

'25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1.3%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라 국내 전력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스 발전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이끄는 정부 지원 정책도 이어질 전망

국내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¹



'25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나 회복세는 완만

- '25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05억 TOE³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석탄을 제외한 주요 에너지원 수요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국내 전력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전용 가스 소비 증가 기대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4.09)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 정책은 유지될 예정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2024.8),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대비 증감률, Note 2: 신재생에는 기타에너지도 포함,

Note 3: TOE(Ton of Oil Equivalent)는 모든 에너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단위인 석유환산톤

'25년 에너지원별 주요 전망

구분	'25년 전망
석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EU 등 주요국 석탄 소비 감소에 따라 글로벌 석탄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 • 국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석탄 발전량 비중 목표를 '30년까지 17.4%'로 기존 계획보다 낮추어 설정한 만큼 국내 석탄 수요 둔화세는 가속화될 것
석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 확대로 브렌트유 기준 73.0\$/bbl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World Bank) • 국내 석유 수요 중 건물 부문은 가스로 대체되며 소폭 감소하나 산업, 수송 부문에서는 증가할 것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아시아 LNG 가격은 13.5\$/mmbtu 수준으로 예상됨(World Bank) • 수도권 송전선로 부족에 따른 첨두발전¹의 증가를 가스 발전이 담당하면서 국내 발전용 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국내 원자력 수요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97TWh 기록할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원전 발전량 비중 목표는 '30년까지 31.8%'로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반영이 반영되면서 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신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풍력은 금리 인하에 따라 지연되었던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될 것이나 미국 트럼프 당선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다소 타격이 예상됨 • 국내 청정수소 입찰시장² 개설('24년 5월)에 따라 LNG-수소 혼조발전 확대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라 '25년 국내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549.4TWh로 예측 (에너지경제연구원)

Source: World Bank(2024.10), IEA,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첨두발전은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의 최대치를 맞추기 위해 기동되는 발전 방식으로 빠른 기동과 높은 에너지효율로 인해 주로 LNG복합발전이 활용됨, Note 2: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의 확대를 촉진하는 제도

제약·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중심의 시장 확대, CDMO 성장 기회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대사질환 치료제 등이 주목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비중 확대로 CDMO 시장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 의약품 시장 동향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대사질환, 항암제 분야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바이오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비만·당뇨병 치료제의 급성장, 면역항암제의 지속적인 강세 등으로 '25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전년대비 약 4.5%의 성장세를 보이며 1조 2,0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의약품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5년 5,71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의약품 매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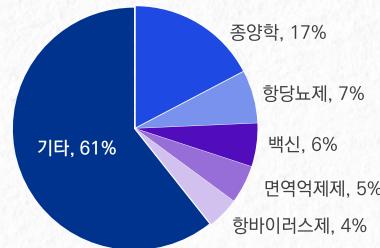
글로벌 의약품 치료 분야별 기준, 종양학(Oncology) 분야가 시장 성장을 견인

- 종양학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25년 약 1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항당뇨제, 백신, 면역억제제, 항바이러스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글로벌 의약품 시장 전망



'25년 의약품 치료 분야별 시장점유율¹



Source: Statista,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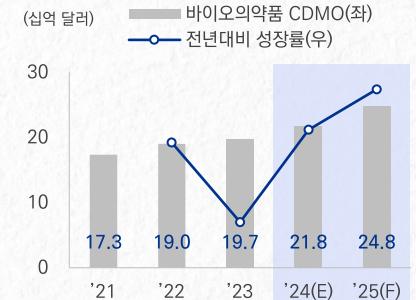
Note 1: 종양학(Oncology), 항당뇨제(Anti-Diabetes), 백신(Vaccines), 면역억제제(Immunosuppressants), 항바이러스제(Antiviral Drugs)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동향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CDMO 시장규모도 확대되는 추세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은 '25년 248억 달러로 전년대비 13.7% 성장하여 바이오의약품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항체-약물 접합체(ADC)¹ 등 항체치료제와 세포·유전자치료제(CGT)²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성장세에 따라 수주 확대가 예상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혜 기대
- CDMO 시장이 부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기존 CDMO 기업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전통 제약사까지 CDMO 사업 본격화 예상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전망



국내 CDMO 기업 동향

기업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	18만L 규모의 5공장 건설 중 ('25년 4월 완공 예정)
셀트리온	100% 자회사 설립 후 '25년 생산시설 착공 등 CDMO 사업 확대 발표 ('24년 10월)
한미약품	총 2만 5,000L 규모의 대형 미생물 배양시설을 이용한 단백질 제조 CDMO 사업 발표 ('24년 11월)

Source: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Antibody Drug Conjugate, Note 2: Cell and Gene Therapy

건설》회복 지연 요인 상존하나, 민간 수주를 중심으로 점진적 반등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5년 210.4조 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할 전망. SOC 예산 축소, 높은 공사비 등 우려가 상존하나, 금리 인하 기조,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에 따라 민간 수주를 중심으로 느린 회복 기대

국내 건설수주액 현황 및 전망

'25년 SOC 예산 축소로 공공 수주 감소가 전망되나, 금리 인하 기조,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 수주를 중심으로 느리게 회복 가능성

- '25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줄며 공공 수주는 1.7% 감소하지만, 민간 수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맞춰 4.1% 증가 전망
- 공종별로 토목 수주는 전년대비 0.3% 감소 전망, 건축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및 3기 신도시 개발 속도 제고로 전년대비 3.7% 증가 전망

(조 원)

구분	'23년	'24년(E)	'25년(F)	증감률 (YoY)
총합	206.7	205.8	210.4	▲ 2.2%
공공	66.1	66.4	65.3	▼ -1.7%
민간	140.7	139.5	145.1	▲ 4.1%
토목	72.4	75.7	75.5	▼ -0.3%
건축	134.3	130.1	135.0	▲ 3.7%
주거	67.7	70.6	73.9	▲ 4.7%
비주거	66.6	59.6	61.1	▲ 2.6%

Sour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5년 건설산업 주요 이슈

국내 건설공사비지수 강보합 및 고환율 전망 ...
공사비 안정화 방안 추진 속 리스크 공존

-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으로 국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3년간 30% 가까이 급등
- 금리인하 기조와 더불어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 추진은 긍정적 요인이나, 트럼프發 강달러가 예상되어 회복 지연 우려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



Sourc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크라이나 재건, 체코 원전사업 등을 기회로 해외건설 수주 기대

- 북미 지역 수주 급감 등으로 '24년 3분기 기준 누적 해외 건설 수주액은 21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9.7% 수준
- 중동 발주의 불확실성,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수주 전략 우려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체코·불가리아 원전사업 등이 '25년 해외건설 수주의 기회요인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 추이



Source: 해외건설협회

Source: 국토교통부, 언론보도 종합

항공》국내 항공여객 패권 변화 주목, 화물 특정 품목發 우려 상존

'25년 국내 항공여객은 꾸준한 회복세가 전망됨. 특히 국내 Top2 항공사 자회사 편입에 따른 LCC 패권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 항공화물도 완만한 지속 성장세를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심화될 대중 무역견제로 우려와 가능성 상존

항공여객산업 현황 및 전망

'25년 국내 항공여객 수요는 꾸준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여파로 이어지는 LCC¹ 패권의 변화가 주목됨

-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반등을 기반으로 항공여객 수요는 꾸준한 회복세 전망
 - 특히, 메가 FSC²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 후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 LCC의 해외 노선 확대와 공항 슬롯 추가 배정이 예상. 이에 '25년에는 LCC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
- LCC의 강세를 기반으로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노선의 여객운항이 타 노선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LCC의 주요 취항지인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으로의 항공여객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며 높은 회복세를 보임. 특히 '24년 11월 8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에 따라, 다소 정체되어 있던 중국 노선이 활성화되며 아시아 노선 여객운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항공여객 운항 추이³



노선별 항공여객 탑승객 추이



Source: 항공정보포털시스템

Note 1: LCC(Low-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Note 2: FSC(Full-Service Carrier, 풀 서비스 항공사), Note 3: 연도별 1~9월 데이터, Note 4: 연도별 1~9월 데이터, 아시아는 일본, 중국 제외

항공화물산업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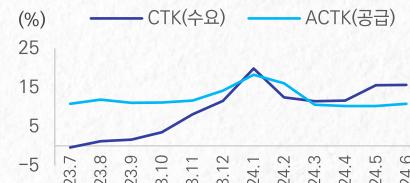
글로벌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나, 강화되는 자국보호주의 기조에 따라 주요 항공화물 품목의 물동량 감소 우려 상존

-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은 점진적인 물류 회복과 지정학적 요인(홍해 사태 등)으로 CTK(수요)와 ACTK(공급) 모두 원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다만, 자국보호주의 기조에 따라 주요 항공화물 품목인 첨단전자제품 등의 국제 물동량이 감소될 우려도 상존. 특정 품목별 물동량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중요할 전망

국내 항공화물시장도 완만한 증가세 전망을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속 더욱 심화될 대중 물류견제로 인한 우려(물동량 감소) 및 가능성(물류 거점) 공존

- 국내 항공화물은 건조한 주요 운송품목(전자제품, 화장품, 헬스케어 등)과 C커머스(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 성장세 유지
-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에 주요한 품목에 따라 항공 물동량 감소의 우려와 물류 거점으로의 가능성 공존

글로벌 항공화물 성장률¹



국내 항공화물 운송실적 추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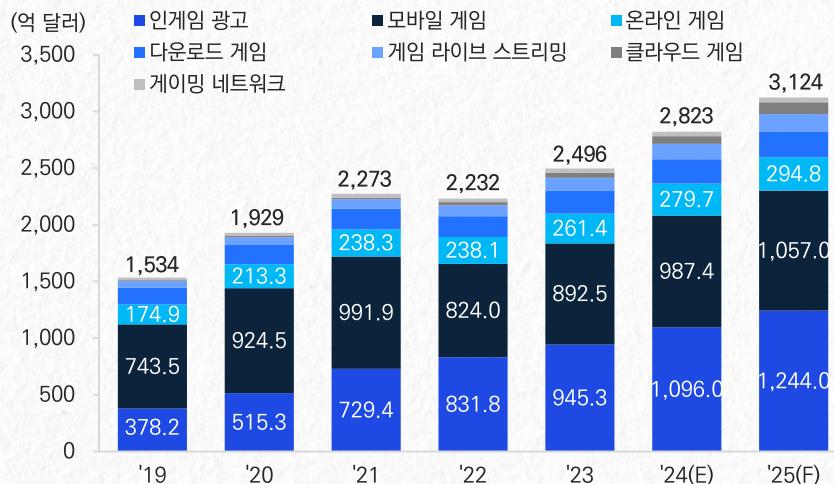
Source: 항공정보포털시스템

Note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CTK(Cargo Tonne-Kilometer)는 항공화물의 수요 지표, ACTK(Available Cargo Tonne-Kilometer)는 공급 지표를 의미, Note 2: 연도별 1~9월 누적 기준

游戏》 모바일·온라인 게임 시장 성장세 둔화 … 돌파구 마련이 과제

모바일,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세 둔화 및 중국 게임의 위상 제고 등 더욱 치열해진 경쟁 속 장르·플랫폼 확장 및 해외 진출 전략이 강조될 전망. 게임산업 내 AI 도입 범위가 확대되며 게임 생태계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25년 글로벌 게임 시장은 인게임 광고 시장, 클라우드 게임 등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 나가나 모바일, 온라인 게임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25년 글로벌 게임 시장은 3,124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0.7% 성장. 이 중 모바일 게임 시장은 7.0% 성장, 온라인 게임 시장은 5.4% 성장할 전망
- 모바일 및 온라인 게임 시장은 치열해진 경쟁 상황 속 글로벌 경기 둔화, 대안적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 등으로 각각 전년 성장률(14.6%, 6.9%)에 미치지 못할 전망

Source: Statista Market Insights(2024.4),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5년 게임산업의 주요 이슈

01 중국 게임의 높아진 위상

- 높아진 기술력과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수요증을 기반으로 중국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선전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 또한 게임산업에 대한 기존의 고강도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 산업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중국 게임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02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 전략 강화

- '24년 국내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업황이 둔화세를 보이나, 넥슨,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등 일부 게임사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매출이 성장을 견인
- 국내 게임사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플랫폼 확장,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

03 장르 및 플랫폼 확장 트렌드 지속

- 콘텐츠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기존 장르의 융복합, 참신한 서브컬처 장르 개발, 트랜스미디어 IP 활용 등이 이루어지며 장르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
- 북미, 일본 등 콘솔 시장이 발달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 콘솔 게임 제작 및 출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04 게임산업 내 생성형 AI 기술의 도입 범위 확대

- 게임 프로그래밍, 사운드, NPC(Non Player Character) 생성 등 게임 제작과정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 범위 및 활용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게임, 인터랙티브 게임, 다양한 소재의 인디 게임의 증가 예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수익성 개선 전망 … 타깃 시장 전략 부각

글로벌 K-콘텐츠 인기를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 개선, 시장 확장을 위한 타깃 시장 전략이 강화될 전망. AI 기술 도입을 통한 제작 효율화, 솟폼 콘텐츠 및 세분화된 장르 수요 관련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25년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전망

분야	콘텐츠 제작	플랫폼/거버넌스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보유 제작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의 전환 - 생성형 AI 기술 활용을 통한 제작 효율성 제고 노력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가격 차별화 전략 지속 확대될 전망 - 국내 영상 플랫폼간 인수합병 및 게임, 통신 등 타 분야와의 파트너십 강화 - <u>스포츠</u> 중계 등 장르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모색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S, 블랙핑크 등 각 사의 대형 아티스트 컴백으로 공연, 앨범, MD 부문의 매출 성장 예상 - 현지 아티스트 육성을 통한 지역별 시장 공략 강화 - 음악 제작과 유통, 공연 등에 AI, XR(확장현실) 기술의 접목 및 버추얼 아티스트 관련 비즈니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하이브), 디어유 버블(SM엔터테인먼트)의 구독 모델 도입, 글로벌 진출 확대에 따른 수익화 기대 - 기획사 경영권 분쟁과 같은 리스크 요인을 축소하기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
웹툰/ 웹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영상 등 다양한 산업과의 IP 협업을 확대하며 산업의 외연 확장에 나설 전망 - 웹툰/웹소설 제작 보조에 특화된 AI 애플리케이션의 상용화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웹툰 플랫폼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동남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미국, 일본에 집중 - 핵심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5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이슈

01

콘텐츠 제작에 AI 기술 상용화 가속화

- 생성형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상용화로, 콘텐츠 제작에서의 활용 확대 전망
- AI 기술은 콘텐츠 제작의 기술 장벽을 일부 낮추며 개인화된 콘텐츠 및 인디 콘텐츠 제작 증가 예상
- AI 기술 관련 일자리, 저작권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

02

숏폼 콘텐츠 전용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 확대

- 영상 제작비 상승과 절파(Z+Alpha) 세대의 숏폼 콘텐츠의 시청 수요가 확대되며, 저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미국 등 주요 콘텐츠 시장에서 숏폼 드라마 등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숏폼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특화된 전용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장될 전망

03

특정 장르에 대한 더욱 세분화되고 파편화되는 수요 확대

- 서브컬처, 특정 문화권의 콘텐츠 등의 니치 장르 인기가 지속되며 장르에 대한 수요가 더욱 세분화되고 파편화될 전망
-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사용자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유통》여전한 소비 위축, 업태별 기대와 우려 공존

유통업 전반은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며 점진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태별 특성에 따라 온도차 갈릴 전망. 근거리 소비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업태 위주로 긍정적 실적 기대

소비 지표 추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Source: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4년 10월, '24년 3분기 수치는 잠정치

'24년 주요 유통업태별 현황 및 '25년 전망

'24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아
소비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임. 이에 유통업 경기도 전반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전망

백화점

백화점은 고가품 구매 심리 및 해외 관광객 수요로 현황 유지 전망

- 백화점 주력 상품인 럭셔리 소비 심리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
- 간판 점포 중심의 매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하며 백화점업계는 상위권 점포 키우기에 주력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가성비를 내세우는 모습이나 큰 폭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온라인과 취급품목이 다수 겹치는 업태 특성에 따라 온라인 채널과 가격 경쟁 심화. 온라인 장보기 트렌드가 이어지며 성장 여력 확보에 어려움
- 근거리·소량 구매 트렌드로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업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저하

면세점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나 회복세 제한적

- 고환율 지속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중국 경기 부진 및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이종고를 겪으며 회복세 제약 예상
- 로드숍·편의점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 소비처 다양화 트렌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면세점 수요는 일부 약세

편의점 SSM

편의점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균형 점포 특성에 기반한 특수 기대

- 근거리·소용량·다빈도 쇼핑 트렌드로 근거리 쇼핑 수요 확대
- 편의점은 문구류 확대, 택배 서비스 강화 등으로 종합 균형 점포로 입지 확보
- SSM은 텔리 확대, 퀵커머스 도입 등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 틈새시장을 공략한 상품 구성 및 비즈니스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

온라인

이커머스, 저성장 기조 전환 및 시장 재편에 따라 성장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이커머스업체의 국내 진출이 이어지며 이커머스 시장 내 경쟁 강도가 거세질 전망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셀러 모두 자금력이 풍부한 상위업체로쏠리며, 이커머스 시장 재편 속도는 가속화될 것



식품·외식 » 내수 부진 속 해외 수출 중심의 성장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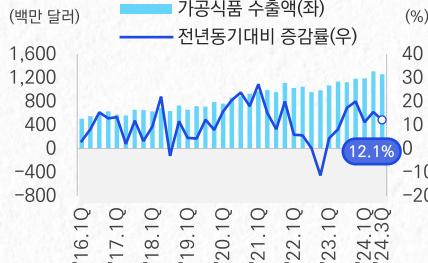
장기간 지속되어 온 식품·외식 물가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24년 대비 긍정적 영업환경 기대. 한편 글로벌 시장 내 K-푸드 관심이 지속되며 수출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 전망

'24년 식품·외식 시장 현황



Source: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전년동기대비, 승용차를 제외한 순수 소매판매액과 비교, '24년 9월은 잠정치

국내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 추이



Source: 한국무역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HS코드 19, 20, 21을 포함

외식비 지출전망CSI



Source: 한국은행
Note: '24년 10월은 잠정치

음식서비스 온라인 거래액 증감률



Source: 통계청,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전년동기대비, '24년 3분기는 잠정치

'25년 식품·외식 시장 전망

식품

식음료, 내수 부진 속에도 실속형 소비 기조에 따라 간편식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선호 지속 예상. 해외 시장 내 K-푸드 약진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식료품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 여파로 국내 식료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다만 '25년 하반기 들어 내수 경기 개선 시 식품 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
- 실속형 소비가 지속되면서 국내 식품 시장에서는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인 간편식·밀키트, PB(Private Brands)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라면, 과자, 김 등 주요 가공식품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5년에도 식료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

외식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내식 선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며, 푸드딜리버리의 경우 배달앱 일상화로 퀵커머스·테이크아웃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 예상

- 외식업의 경우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해 외식비 지출전망CSI는 100 이하의 보합 추이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푸드딜리버리 거래액의 경우 '23년 1분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차츰 회복되는 추세. 습관화된 배달앱 이용 트렌드로 인해 성장 여력 존재

패션》 침체기 넘어 소폭 개선 전망, 다만 회복 강도는 제한적

패션 시장은 서서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겠으나 강도가 약해 가시적 성과 달성 불분명. 한편 글로벌 패션 기업들의 재고 과잉 완화와 주요 수요국인 미국의 완만한 의류 소비 회복세가 맞물림에 따라 패션OEM업계는 소폭 반등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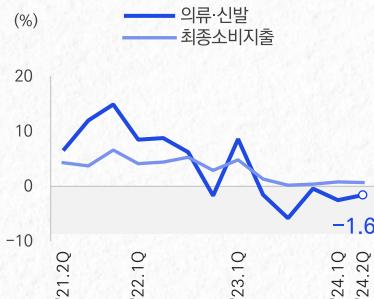
〈패션〉 '24년 현황 및 '25년 전망

의류비 지출전망CSI 및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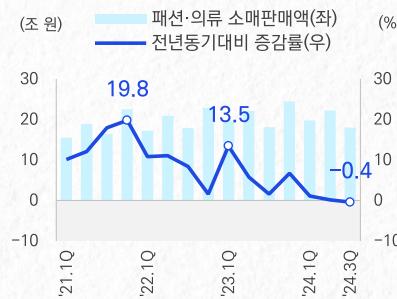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Note: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의류·신발 최종소비지출 증감률



Source: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원계열 실질기준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4년 2분기는 잠정치

국내 패션·의류 소매판매액 추이



Source: 통계청
Note: 의복·신발·가방 소매판매액의 합계. '24년 3분기는 잠정치

〈패션OEM〉 '24년 현황 및 '25년 전망

미국 의류 소매 판매액·재고액 증감률



Source: US Census Bureau,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전년동월대비

패션 물가 안정화 조짐으로 '25년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 소폭 개선 기대

- 국내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은 '23년 10월 8.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며 '24년 하반기 2%대 유지 중
- 의류비 지출전망CSI는 '24년 96~98 내외로 100을 하회하며 단기간 반등 제약
- '25년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 시 패션 소비심리 개선 가능

소비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의류·신발 등 당장 필요하지 않은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을 자제하려는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의류·신발 지출은 '23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24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1.6% 감소
- 내수 회복 지연으로 준내구재 소비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경기 부진으로 패션 소비가 감소하며 '25년 패션·의류 시장 회복 지연 예상

- '23년 1분기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3.5% 확대되며 유의미한 회복세를 시현했으나 '24년 3분기 -0.4%로 역성장
-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운 SPA 브랜드의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마이크로 브랜드 중심의 수요 지속 가능성

핵심 수요국인 미국 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과잉 재고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패션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계에 대한 긍정적 영향 기대. 다만 주요 바이어별 재고 보충 시점이 상이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차별적 실적 흐름 예상

- 미국 의류 재고 증가율은 '22년 6월 일시적으로 치솟았으나 의류 바이어들의 재고 축소 노력 끝에 증가율이 다소 둔화
- 미국 의류 소매판매는 '22년 2월부터 급격히 둔화된 이후 정체 양상으로 '24년 8월 0.6% 성장

화장품》K-뷰티 수출 호조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화장품 시장은 인디 브랜드가 전반적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K-뷰티 확대 및 성공적인 수출국 다변화에 힘입어 수출 중심의 시장 환경이 형성될 것

'24년 국내 화장품 시장 현황 및 '25년 전망

국내 화장품 시장은 방한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소폭 회복세 이끌 것

-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24년 3분기 누계 기준 25.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25년에는 방한 관광객 증기에 힘입어 화장품 판매 실적 회복세 예상

인디 브랜드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OEM·ODM 업체는 인디 브랜드 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

- 온라인과 H&B스토어 중심의 화장품 유통 환경이 굳건히 자리잡으며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성장은 '25년에도 이어질 전망
- 인디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되며 OEM·ODM 업체의 성장세도 견조할 것으로 기대

'24년 국내 화장품 수출 현황 및 '25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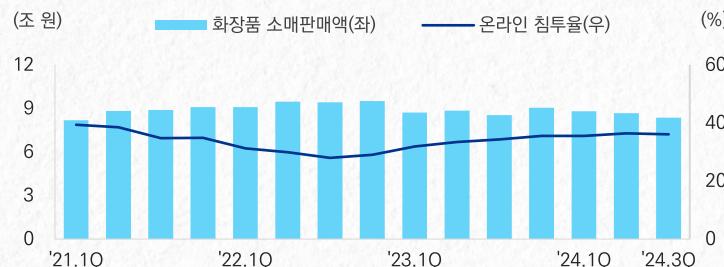
국내 화장품 수출은 글로벌 K-뷰티 인기에 힘입어 호조세 지속 예상

- 국내 화장품 수출은 '24년 3분기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18.1% 확대되었으며, '24년 수출은 대미 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 화장품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화장품 수출 시장 내 한국 점유율은 '23년 기준 5.5%로 싱가포르를 제치고 4위 수출국으로 부상

K-뷰티 주력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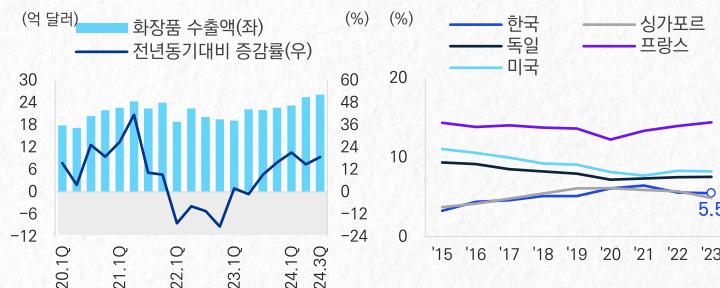
- 북미, 일본, 유럽 등 중국 외 국가에서 K-뷰티가 저변을 확대함에 따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이어질 전망
- 국내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 중국 비중은 '24년 3분기 누계 기준 24%로 '23년 대비 9%p 줄어든 반면 대미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동분기 19%로 '23년 대비 5%p 증가

국내 화장품 판매액 및 온라인 침투율



Source: 통계청
Note: '24년 3분기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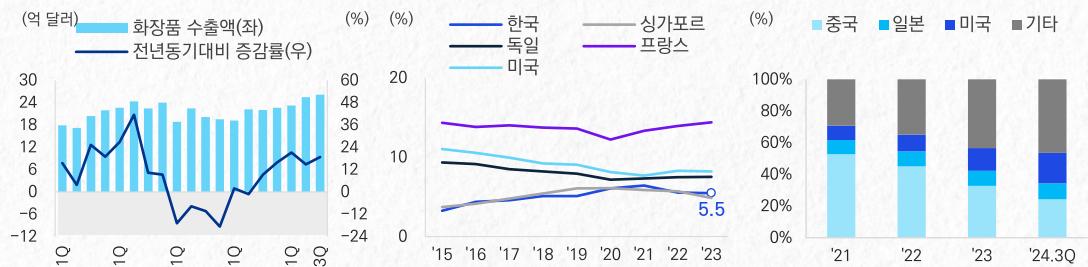
국내 화장품 수출액 추이



Source: 한국무역협회

화장품 수출 시장 점유율 추이

국내 화장품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Source: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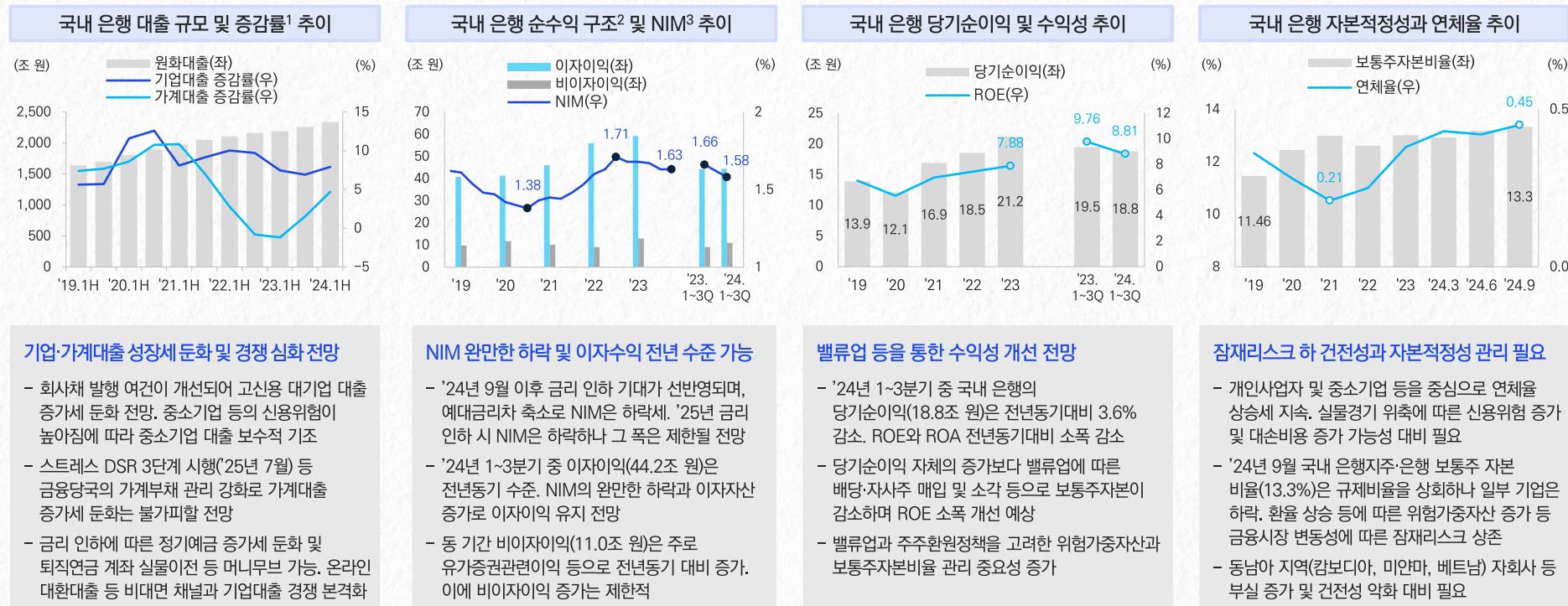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24년은 3분기 누계 기준



은행》NIM 하락·대출 증가세 둔화로 경쟁 심화, 건전성·자본적정성 중요

완만한 NIM 하락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직접금융 확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기업·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와 경쟁 심화 전망. 이자중심 수익 구조, 실물경기 약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성장과 혁신, 자본적정성 간 균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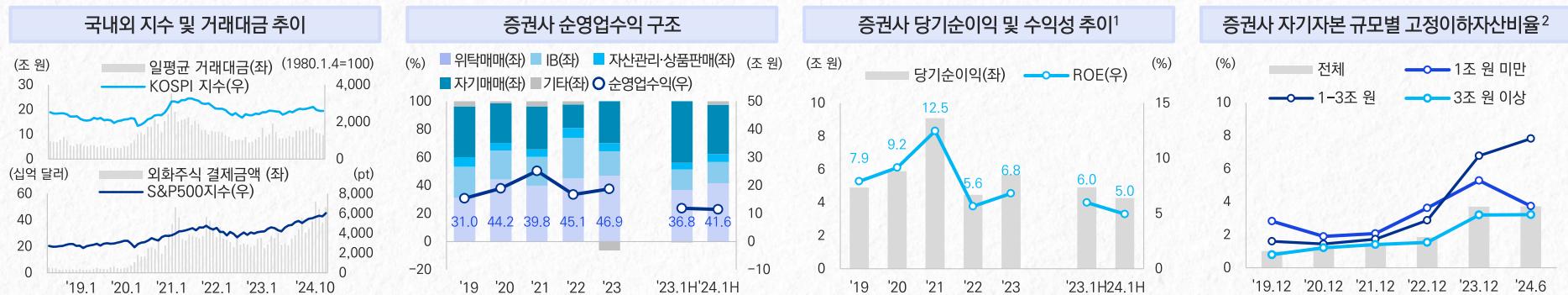
'24년 은행산업 현황과 '25년 전망



증권》 브로커리지·트레이딩 실적 개선 전망 ... 자본력 등에 따른 양극화

금리 인하 및 퇴직연금 운용 수요·해외주식 선호 등으로 브로커리지·트레이딩 부문 실적 개선 전망. IB 부문 관련 회사채 수요와 M&A 관련 기회와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상존. 자본력과 리테일 역량에 따라 증권사 간 실적 격차 확대 전망

'24년 증권산업 현황과 '25년 전망



유동성 확대로 국내외 주식 거래 소폭 증가 가능

- 한국 주식은 백스권으로 수출 실적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주식거래대금 소폭 증가 가능
- 외화주식 결제대금은 '24년 10월 중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자금 이동,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 및 증권사 경쟁 확대 전망
-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 시행 및 고수익 금융상품 선택 위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 전망

브로커리지·트레이딩 실적 중심 제한적 증가

- '24년 상반기 증권사 순영업수익(11.4조 원)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 위탁매매 수익은 증가한 반면 자기매매 수익 감소에 기인
- '25년 해외주식 등을 중심으로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 수익 소폭 개선 가능
- H자수 연계상품 손실로 위축된 ELS 투자심리가 중국 증시 상승 등으로 소폭 회복되고, 금리 하락세로 트레이딩 실적 개선 가능

수익성 제한적 개선 및 대형화를 위한 준비

- 부동산PF 이슈가 지속되면서 채무보증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기업 직접자금조달 수요 확대 및 M&A 시장 회복 시 관련 수익 증가 가능
- '25년 공매도 재개 등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규제 비용 증가 전망
-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영위, 초대형IB 인가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형 증권사 준비 중. 초대형증권사와 대형 증권사 간 업무와 실적 격차 확대 전망

자산건전성 부담과 실적 양극화 가능

- 자기자본 1조~3조 원 미만 증권사의 '24년 6월말 기준 고정이하자산비율은 7.8%로 전체(3.7%)를 상회, 부동산PF 관련 자산건전성 약화에 기인
-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부실 이슈 지속
- 사업장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으로 초기손실 가능
- 증권사별 자본력, 리테일 규모 및 비중 등에 따른 실적 차별화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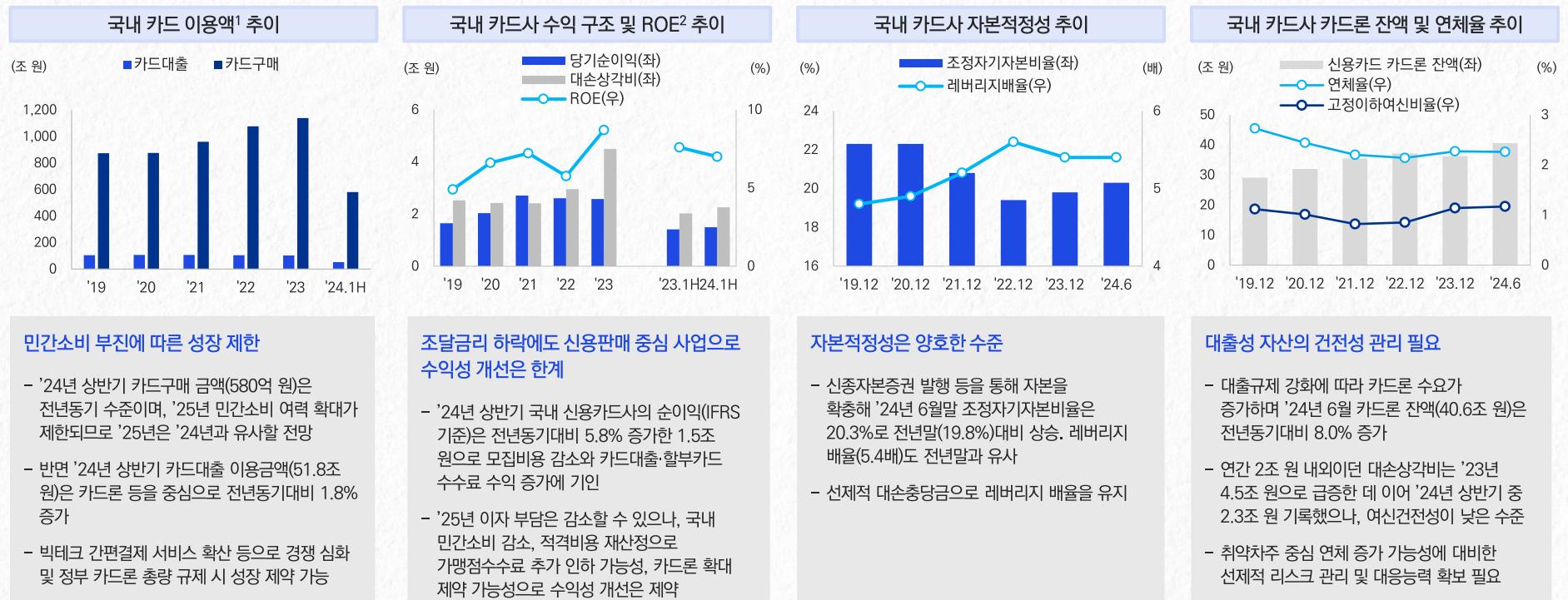
Source: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반기 기준 ROE의 경우 연율화하지 않음, Note 2: 전체는 외국계 증권사 포함 총 60개사로 '24년 6월말 자기자본 기준

카드》조달비용 완화와 카드론·가맹점수수료 규제 가능성 상존

'25년 자금조달 비용은 하락할 수 있으나, 카드론 총량 규제 및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인하 현실화 시 성장성·수익성 약화 가능성. 대손부담 등 건전성 관리,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 대응 및 수익 구조 다양화 모색 중요

'24년 신용카드산업 현황과 '25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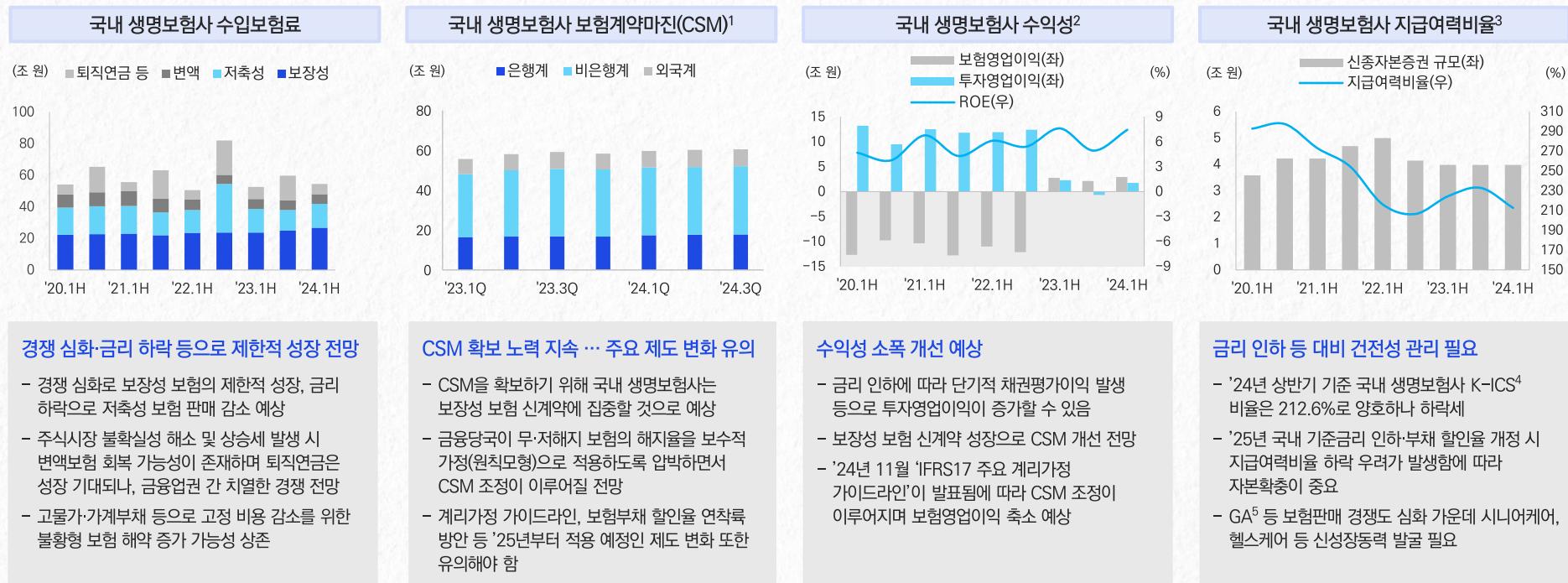
Source: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카드 이용액은 국내 8개 전업사 및 11개 경영은행 기준, 그 외는 전업 8개사 대상, Note 2: ROE는 직전 1년 기준

생명보험》경쟁 심화 속 금리 하락 등 대비한 건전성 관리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명보험 수요가 감소하며 제한적인 성장 전망.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 여력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본격화를 대비한 건전성 관리와 新사업 진출로 생존 전략 모색이 필수적임

'24년 생명보험산업 현황과 '25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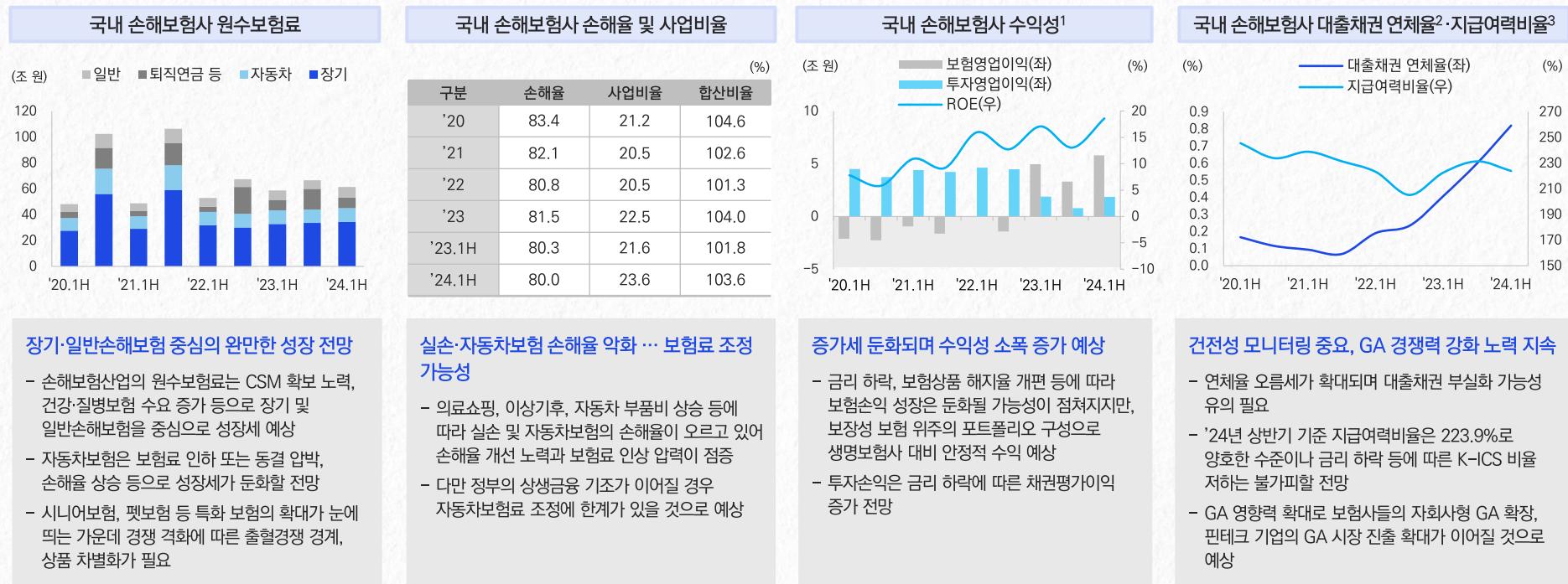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Note 2: '23년 상반기부터 IFRS17 적용, Note 3: '22년 하반기까지는 RBC(Risk Based Capital)이며 '23년 상반기는 경과조치 적용 후 자금여력비율임, Note 4: K-ICS(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자금여력제도, Note 5: GA(General Agency, 법인보험대리점)

손해보험》 손해율 개선 방안 마련, 건전성 관리·성장 기반 모색 중요

금리 하락,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저하 등으로 제한적 수익성 증가가 전망되며, 신규 보험 수요 정체에 따라 성장세 위축이 예상됨.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와 시니어·미니보험 등 상품 차별화와 신상품 개발 등이 중요함

'24년 손해보험산업 현황과 '25년 전망



장기·일반손해보험 중심의 완만한 성장 전망

-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CSM 확보 노력, 건강·질병보험 수요 증가 등으로 장기 및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 예상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 압박, 손해율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
- 시니어보험, 펫보험 등 특화 보험의 확대가 눈에 띠는 가운데 경쟁 격화에 따른 출혈경쟁 경계, 상품 차별화가 필요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 보험료 조정 가능성

- 의료소평, 이상기후, 자동차 부품비 상승 등에 따라 실손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 손해율 개선 노력과 보험료 인상 압력이 점증
- 다만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자동차보험료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증가세 둔화되며 수익성 소폭 증가 예상

- 금리 하락, 보험상품 해지율 개편 등에 따라 보험손의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보장성 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생명보험사 대비 안정적 수익 예상
- 투자손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기이익 증가 전망

건전성 모니터링 중요, GA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 연체율 오름세가 확대되며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 유의 필요
- '24년 상반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23.9%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 하락 등에 따른 K-ICS 비율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
- GA 영향력 확대로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 확장, 핀테크 기업의 GA 시장 진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Source: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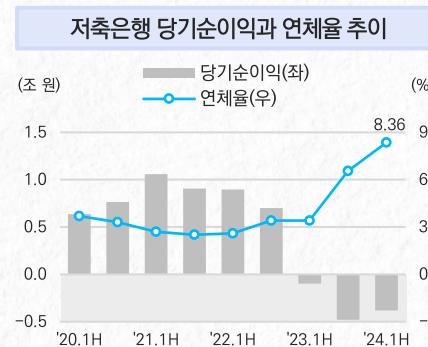
Note 1: '23년 상반기부터 IFRS17 적용, Note 2: 대출채권 연체율은 국내 손해보험사 전체 대상, Note 3: 지급여력비율은 국내 영업 전체 손해보험사 대상이며, '22년 하반기까지는 RBC(Risk Based Capital)이며, '23년 상반기부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임



저축은행·캐피탈 》 최악에서 벗어났으나 부동산 PF 부실화 여파 지속

부동산PF 관련 자산의 부실화로 저축은행·캐피탈 모두 수익성과 건전성 동시 저하.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비중이 높고 신용대출 등 다른 부문까지 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 캐피탈은 할부금융·리스 부문 실적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

'24년 저축은행산업 현황과 '25년 전망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자산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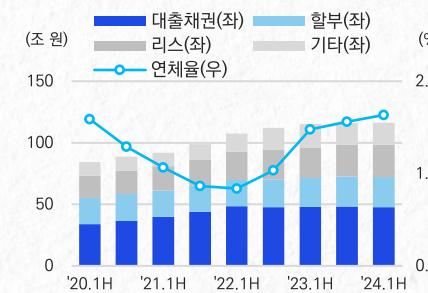
-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보수적인 영업 전략으로 기업대출/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자산 '22년 하반기부터 연속 감소세
-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22년 상반기말 41.4조 원에서 '24년 상반기말 30.3조 원으로 감소하며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커짐
-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과, 자산 축소를 계기로 여신 포트폴리오 쓸림 현상 방지 노력 전망

연체율 급등과 대손비 증가로 적자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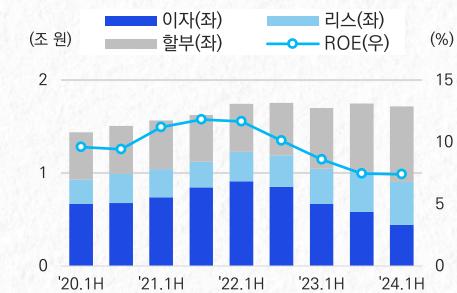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연체 증가와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3개 반기 연속 적자 기록
-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24년 상반기말 8.36%까지 급등하며 건전성 악화
-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로 이자이익 개선이 예상되나,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와 보수적 영업 지속 전망

'24년 캐피탈산업 현황과 '25년 전망

국내 캐피탈사 자산 규모와 연체율



캐피탈 부문별 손익과 수익성 추이



자산 성장성 둔화와 건전성 악화

- 캐피탈사 자산 규모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대출과 할부·리스 모두 성장세 둔화
- 신차 판매 부진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투자금융 확대가 제한되어 '25년 성장은 정체될 전망
- 캐피탈사 연체율은 '23년 상반기말 1.48%에서 '23년말 1.56%, '24년 상반기말 1.63%로 오르며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

자금조달 부담 완화 전망과 PF 변수

- 높은 조달 비용으로 인해 이자손익은 4개 반기 연속 감소했으나 할부금융과 리스의 손익이 꾸준히 증가하며 실적 악화를 방어
- 금리인하로 인해 여전재 발행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나 단기자금 의존도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유동성 대응 방안 확보 필요
- 부동산PF 관련 연체율 급등으로 협회는 부실채권 경·공매 기준을 강화, 부실자산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

Source: 금융감독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2025년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본 비즈니스 대응 전략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5년에는 글로벌 저성장 국면 진입, 주요국 금리 인하와 지정학·지경학적 갈등과 더불어, 다양한 트렌드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장기적 성장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임

'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긍정』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25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등 IC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유지되며 '24년에 이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생성형 AI를 중심으로 AI 보급이 확대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보 경쟁 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요 확대의 중심이 되고 있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주요 기술로 주목 받는 AI 반도체, 전력 효율화 및 발열 관리 등의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노력 필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25년 스마트폰 시장은 '24년 출시된 AI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고도화되며 성장 동력이 유지될 전망대형 스마트폰 제조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 중심의 AI 기능이 다변화되며 서비스 확대 경쟁 본격화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활용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AI 서비스 고도화 전략 마련 필요신규 스마트폰 전환 수요 창출을 위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의 온디바이스 AI 기반 이용자 효용 확대 방안 마련 및 관련 흥보 강화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25년 수주량은 LNG·컨테이너선 공급과잉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기획보한 수주 잔량과 신제품 시장 활성화로 영향은 제한적한미 방산협력 강화로 국내 조선사의 미국 함정 MRO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력 상품이던 LNG·LPG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암모니아 연료추진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차세대 연료 운반선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투자 강화AI를 활용한 함정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고장 예측 등 효율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진행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긍정』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에너지·유틸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에너지 수요는 '25년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나 회복세는 완만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른 국내 전력소비 증가로 발전용 가스 소비 증가가 기대되며, 신재생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 정책은 유지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송전선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전설비 용량 확충 등 전력 인프라 보강을 가속화해야 함 LNG, 원전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확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넷제로 혁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전략이 필요함
제약·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종양학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며,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CDMO 시장규모도 확대되며, 특히 ADC 등 항체치료제와 세포·유전자치료제 중심의 성장세가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암제뿐만 아니라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치료제 등 시장 성장성이 유망한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검토가 필요 기존 CDMO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약사 등의 CDMO 시장 진출로 경쟁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의약품별 글로벌 시장 맞춤 전략이 필요함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 예산 축소, 높은 공사비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기조,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민간 수주 중심의 느린 회복 전망 해외 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 체코·불가리아 원전사업 등에 힘입어 지속 성장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니어하우징, 모듈러 주택 등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확장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통해 외부 변수 대응력과 민첩성 강화 중동지역 발주 불확실성, 중국·인도 등의 공격적 수주 전략에 대비, 해외 발주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유연한 대응 전략 마련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특히 LCC 강세로 아시아 노선 운항이 늘어날 전망 항공 화물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트럼프 2기에서 심화될 대중 무역 견제로 인한 우려와 가능성성이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친환경 항공기 도입 등 탈탄소 경영 전략 검토로 미래 경쟁력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대중 무역 견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긍정』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미디어·엔터테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K-콘텐츠 인기를 기반으로 수익 구조 개선 및 시장 확장을 위한 타깃 시장 전략이 강화될 전망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제작 효율화 모색, 속품 콘텐츠 및 세분화된 장르 수요 관련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제작사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해외 진출 관련 리스크 축소, IP 기반 타 산업과의 협업 강화로 산업 외연을 지속 확장할 필요 장르에 대한 세분화되고 파편화되는 수요 트렌드에 대응하여 소비자 분석 및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함
	식품·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안정화에 따라 식품 내수 시장 내 점진적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한편 가공식품 중심의 우호적 수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가격 부담에 외식 및 배달 수요 위축 경향이 지속되며 내식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 고품질 가공식품을 비롯해 가격·품질·편의성 측면에서 우위 가진 제품들의 성장성이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식, PB 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함 식품업계는 북미·유럽·동남아시아 등 주요 권역별 맞춤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며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필요. 아울러 K-콘텐츠와의 연계 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K-소스 등 혁신 제품으로 신시장 창출 시도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가 전반적인 화장품 시장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온라인과 H&B 스토어 중심의 유통 구조는 인디 브랜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시장 내 K-뷰티 선호가 높아지며 OEM·ODM업체 수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 기업은 인디 브랜드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선제적 M&A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디 브랜드를 육성·발굴하며 K-뷰티 트렌드 선도에 나설 필요 화장품 OEM·ODM 기업은 해외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화장품 제조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대금리차 축소 및 기업·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로 이자이익 예년 수준 지속 및 완만한 NIM 하락세 지속 전망 금리 하락으로 신용위험 완화 및 대손비용 감소가 예상되며, 밸류업 추진으로 배당률 확대에 따른 ROE 소폭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 구조,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가능성, 주요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고려 시 신상품 개발과 업무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밸류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고환율 지속에 따른 위험기증자산(RWA), CET1 비율 관리 등이 중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긍정』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리 인하 및 퇴직연금 운용 수요·해외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등으로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 부문 실적 개선 전망부동산 PF 관련 부담은 지속될 수 있으나, 회사채 수요와 M&A 등 관련 수익 증가 가능. 자본력·리테일 부문 규모 등에 따른 기업간 실적 격차 확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매도 재개 등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해외주식·ISA 계좌·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관련 금융상품 라인 및 디지털영업 경쟁력 강화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 관리, 투자자문과 (특화) 기업금융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정비, 회사채 관련 수요 대응 역량 강화
車	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장기·일반손해보험 중심의 원만한 원수보험료 성장 예상되나, 금리 하락,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수익성은 제한적 증가 전망신규 보험 수요 정체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의 GA 시장 진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출채권 연체율과 지급여력비율 모니터링을 통한 건전성 관리와 회계 및 규제 이슈 대응 필요해외 진출과 현지 맞춤화를 비롯, 협업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 시니어·미니보험 등 특화 보험 발굴과 손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 기존 업무 및 고객경험 개선에 AI를 활용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중립』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글로벌 모바일, 온라인 게임의 성장세 둔화 및 중국 게임의 위상 제고 등 더욱 치열해진 경쟁 상황이 지속될 전망게임산업 내 AI 기술 도입 범위가 확대되며 게임 생태계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북미, 일본 시장을 겨냥한 콘솔 등으로의 플랫폼 다각화, IP 기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AI, 몰입형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한 사용자 경험 차별화, 타 콘텐츠 분야의 인기 IP 기반 협업 강화 등으로 경쟁력 제고 필요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체감 물가가 높아 소비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유통업 경기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오프라인은 근거리 유통업태를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온라인은 이커머스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오프라인은 업태별로 타깃 소비자 특성에 맞춘 제품 구성 및 편의성 제공으로 온라인과 차별화를 도모하며 경쟁력 제고온라인은 K-뷰티, K-푸드 등 한국산 제품의 글로벌 수요를 공략한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강화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류·신발 등에 대한 지출 자체 기조와 함께 중저가 의류 브랜드 중심의 수요가 유지될 전망. 침체된 패션 내수 시장의 회복 강도는 약하겠으나 '25년 하반기부터 회복 흐름 관찰될 가능성핵심 수요국인 미국 내 재고 과잉 이슈가 점차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패션OEM에 우호적인 업황 형성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내 패션업계는 고가~중저가 브랜드 간 균형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수익 구조 강화패션OEM업계는 첨단 기술 기반 자동화 공정 및 스마트 공장 구축 등으로 소규모 오더 물량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 물량 확대 사이클에 대비해야 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중립』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금조달 비용은 낮아질 수 있으나, 카드구매 이용액 증가율 둔화 가능. 빅테크의 영향력 점증 및 결제부문 이익률 저하 중카드로 총량 규제 및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현실화 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약화될 소지. 건전성 지표 악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취약차주 중심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대손부담 증가에 따른 재무 역량 확보, 수익원 다변화 모색안정적 사업 영위하는 간편결제사·PLCC등과의 제휴 및 특화 카드, 디지털·AI 등을 통한 운영 및 비즈니스 강화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명보험 수요가 감소하며 제한적 성장 전망경기 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 여력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급여력비율 하락 우려가 확대되어 자본확충이 중요한 시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리인하 본격화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업권 경쟁도 심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진출이 필수적임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자산 및 건강 관리 솔루션 개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니어를 공략한 요양산업 진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부정』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24년(전년대비 13% 성장 예상) 대비 저조한 5.3%의 정체된 성장 예측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과의 경쟁 영향으로 ‘21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시장점유율 2위 기조가 이어질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업은 정체된 시장 속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텐어라운드에 주안점을 두는 동시에 사업 고도화를 꾀해야 함 마이크로 LED, 투명 디스플레이 등 신제품·신시장 창출 전략을 토대로 차별화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 제품 선점에 주력해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에도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 여파 및 美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감속 정책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예측대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분야는 미국·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업은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외 하이브리드의 차급·차종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신차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 SDV 구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릴리즈·차량 탑재뿐 아니라 SDV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국내 철강 수요는 중국산 철강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수급부담 지속 국내 건설수주 회복으로 봉형강 수요는 개선될 것이나 선박용 후판 등의 부진한 업황은 ‘25년에도 지속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저가제품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차별화된 제품 개발 등에 대한 투자 필요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재고 부담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정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유럽 등 대규모 정제설비 폐쇄가 잇따르면서 정유 수급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국내 정유 업계의 단기적 실적 개선까지는 불확실 에틸렌을 중심으로 주요 화학제품의 수요 둔화, 중국과 중동 지역의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국내 화학 업계의 수익성 회복은 불투명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유가 변동성, 주요국 수요 부진 등 불가피한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 전략이 필요 구조적 공급과잉, 중국 수출 리스크 등에 대응하고자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제품 다각화 전략에 집중해야 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부정』 전망 산업

	'25년 전망	대응 전략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LNG선·컨테이너선은 '21년 이후 이어진 대규모 발주 물량이 인도되며, 선복량 증가 속도가 물동량 증가를 상회하는 공급과잉 발생 우려 상존벌크선·탱커선은 주요국의 경기회복 등에 따른 화물 물동량 증가 고려 시 비교적 안정적 업황을 유지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항로 최적화, 선박 운항 속도 조정, 정기적인 유지보수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AI 기술을 활용하여 항로별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노선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증대해 수익 극대화 추진
저축은행·캐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축은행은 이자이익 개선이 예상되나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와 대손비 증가로 '25년 상반기까지 적자 지속 가능성캐피탈의 '25년 성장은 다소 정체가 예상되며 부실채권 경·공매 기준 강화에 따라 부동산 PF 관련 부실자산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축은행은 자산 축소를 계기로 여신 포트폴리오 쓸림 현상을 줄이고 부실채권의 빠른 정리로 텐어라운드 시점 앞당길 필요캐피탈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른 PF 수익성과 건전성 회복에 힘쓰고 할부금융과 리스 분야 확대로 성장 동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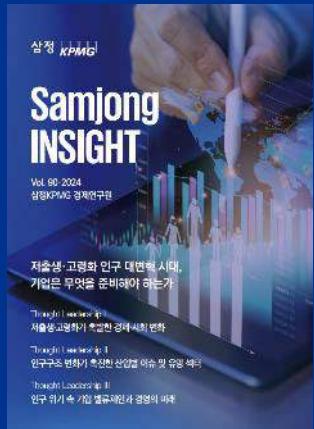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See other Business Reports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며,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발간

저출생·고령화 인구 대변혁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Contents

- I. 저출생·고령화가 촉발한 경제·사회 변화
 - 출생·사망·이동 측면 변화가 초래한 인구 현상
 - 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를 견인하는 인구 현상
- II. 인구구조 변화가 촉진한 산업별 이슈 및 유망 섹터
 - 사회·경제·기술·가치관 변화에서 찾는 기회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각 산업별 대응
- III. 인구 위기 속 기업 밸류체인과 경영의 미래
 - 밸류체인으로 바라본 기업 경영의 미래
 - 밸류체인 부문별 기업 경영 변화와 대응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2024년 11월 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Contents

- I. 미국 대선 개요 및 결과
- II.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경제·통상 정책
- III.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
- IV. 결론 및 시사점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엔터미디어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T 02-2112-7626

E sanghoroh@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